

# 한국사원전래의 불화내용과 그 성격 (韓國寺院傳來의 佛畫內容과 그 性格)

-조사방법론을 중심으로-  
(調查方法論을 中心으로)

洪潤植

## 目次

一. 序言	四. 幀畫의 分化와 그 展開
二. 幀畫의 類型	(一) 上端信仰과 그 幀畫의 分化
(一) 幀畫의 類型	(二) 中壇信仰과 그 幀畫의 分化
(二) 幀畫의 類型構造	(三) 下壇信仰과 그 幀畫의 分化
三. 韓國佛教幀畫의 構造物 性格	五. 結論

## 一. 서언(序言)

한국사원(韓國寺院)에 전래(傳來)하는 정화(幀畫)는 한국불교신앙(韓國佛教信仰)의 표상(表相)이다. 따라서 정화(幀畫)의 내용(內容)은 곧 신앙(信仰)의 내용(內容)이요 신앙(信仰)의 대상(對象)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화(幀畫)를 대상(對象)으로 일정(一定)한 의궤(儀軌)에 따라 신앙행위(信仰行爲)를 표출(表出)한다. 물론(勿論) 불교(佛教)가 그 신앙(信仰)의 대상(對象)을 정화(幀畫)만으로 하지 않고 불상(佛像) 불탑(佛塔) 불경(佛經) 등(等)도 주요대상(主要對象)으로 하기는 하나 정화(幀畫)가 지니는 특성(特性)은 경전내용(經典內容)의 가시적(可視的)인 대경(對境)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출(表出)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불교(佛教)의 신앙(信仰)은 경전(經典)에 의거(依據)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나 우리가 경전(經典)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의 종교적(宗敎的) 요구(要求)이며 이를 읽으면 번뇌(煩惱)가 사라지고 심사(心思)가 열리는 것이다. 따라서 경전(經典)은 이를 이해(理解)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생(衆生)의 전심(全心)을 움직이는 종교체험(宗敎體驗)이 필요(必要)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귀의(歸依)하는 신앙행위(信仰行爲)가 표출(表出)됨으로서 비로써 종교목적(宗敎目的)을 달성(達成)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불교(佛教)의 경전(經典)은 그 내용(內容)이 다양(多樣)한 것이어서 신앙행위(信仰行爲)의 표출

(表出)에는 일정(一定)한 의궤(儀軌)가 필요(必要)하게 되며 한편 소의경전(所依經典)에 따라 종파(宗派)의 분화(分化)를 낳게 한다. 여기서 정화(幀畵)는 이상(以上)과 같은 경전상(經典上)의 다양(多樣)한 신앙내용(信仰內容)을 압축하고 질서(秩序)지위 도상화(圖上化)한 것이라 할 수 있게 된다. 즉(卽) 경전(經典)에 의거(依據)하여 달성(達成)한 종교체험(宗教體驗)은 그를 압축하고 질서(秩序)지운 일정(一定)한 의궤(儀軌)를 필요(必要)로 하게 되며 또한 그 의궤(儀軌)를 도상화(圖上化)한 것이 정화(幀畵)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화(幀畵)의 내용(內容)을 구명(究明)하기 위(爲)해선 대상정화(對象幀畵)의 소의경전(所依經典)과 의궤(儀軌)의 내용(內容)을 기본요건(基本要件)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또한 정화조사(幀畵調査)에 있어 다음과 같은 것을 간과(看過)할 수 없게 된다.

한국불교(韓國佛敎)는 중국불교(中國佛敎)를 모태(母胎)로 전래(傳來) 발전(發展)되었으나 중국불교(中國佛敎)와는 다른 특질(特質)을 지닌다.<sup>1)</sup> 즉(卽) 중국불교(中國佛敎)는 인도불교(印度佛敎)가 한문화권(漢文化圈)의 불교(佛敎)로 바뀌면서 원시불교(原始佛敎)와는 다른 중국사상(中國思想)을 바탕으로 한 다양(多樣)한 대승종파(大乘宗派)를 발전(發展)시키고 이같은 불교(佛敎)가 한국(韓國)과 일본(日本)에 전래(傳來)되나 일본(日本)에서는 중국(中國)과 또다른 종파불교(宗派佛敎)를 낳게하고 한국불교(韓國佛敎)는 중국(中國) 일본불교(日本佛敎)와는 달리 다양(多樣)한 사상(思想)이 하나로 융통(融通)하는 의미(意味)를 지니고 발전(發展)된다. 즉(卽), 한국불교(韓國佛敎)의 문제제기(問題提起)는 언제나 제문제(諸問題)를 무엇으로 포용(包容)하느냐 하는데 있었다. 신라시대(新羅時代)의 원효(元曉) 의상(義湘)이 그러하였고 고려시대(高麗時代)의 지눌(知訥)과 의천(義天)이 그러하였다. 그리고 조선시대(朝鮮時代)의 휴정(休靜)도 여기 예외(例外)일 수 없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한국불교(韓國佛敎)의 전통사상(傳統思想)은 정화(幀畵)의 내용(內容)에서도 찾아 볼 수 있어 크게 주목(注目)을 끌게 한다. 우선 한국불교사원(韓國佛敎寺院)에 전(傳)하는 정화내용(幀畵內容)의 다양성(多樣性)이다. 이는 한편에서 보면 불교신앙(佛敎信仰)과는 다른 토속신앙적(土俗信仰的)인 요소(要素)도 아울러 지니고 있어 얼핏보면 미신적(迷信的)인 불교(佛敎) 혹은(或)은 다신교적(多神敎的)인 종교(宗敎)로 오해(誤解)하기 쉬우나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에는 하나의 질서(秩序)가 있고 체계(體系)가 있어<sup>2)</sup> 전술(前述)한 한국불교(韓國佛敎)의 사상적(思想的) 전통(傳統)에서 살핀 조화(調和)와 회통(會通)의 내용(內容)을 찾을 수 있게 한다. 즉(卽), 조화(調和)와 회통(會通)의 방법(方法)은 다양(多樣)한 사상(思想)이 나오게 하고 또한 다양(多樣)한 사상(思想)을 하나로 들리는 귀일(歸一)의 문(門)을 열어 놓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問題)로 제기(提起)될 수 있는 것은 정화조사(幀畵調査)를 통(通)하여 한국불교신앙(韓國佛敎信仰)의 추이(推移)를 살필 수 있다는 것이다. 비록 오늘날에 전(傳)하는 정화제작(幀畵製作)의 상한년대(上限年代)가 조선중기(朝鮮中期) 이상(以上)으로 소급될 수 없다고 하나 2~300여년(餘年) 동안의 정화내용(幀畵內容)의 변천과정(變遷過程)을 살필 수 있다는데<sup>3)</sup> 주목(注目)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 결들여 지역(地域)에 따른 비교조사(比較調査) 그리고 화원(畵員)의 계보조사(系譜調査) 등(等)도 아울러 결드려야 됴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끝으로 이상(以上)과 같은 방법론(方法論)으로 정화(幀畵)의 내용(內容)과 양식(樣式)이 어느 정도(程度) 구명(究明) 되어졌을 때 다음으로 정화(幀畵)라는 그림이

지니는 회화미(繪畫美)에 우리는 접근(接近)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런데 본고(本稿)에서는 주(主)로 의궤내용(儀軌內容)을 중심(中心)으로 정화(幀畫)가 지니는 신앙적(信仰的) 성격(性格)과 그 내용(內容)을 살피고 의궤(儀軌)에 따른 정화조사(幀畫調査) 방법론(方法論)을 제기(提起)해 보고져 하는 것이다.

## 二. 정화(幀畫)의 유형(類型)

### (一) 정화(幀畫)의 유형(類型)

한국사원(韓國寺院)에 전(傳)해지는 현존정화(現存幀畫)는 크게 나누어 상단정화(上壇幀畫), 중단정화(中壇幀畫), 하단정화(下壇幀畫)로 구분(區分)할 수 있다. 즉(卽), 상단(上壇)은 불보살단정화(佛菩薩壇幀畫) 중단(中壇)은 불법수호신(佛法守護神)의 신중단정화(神衆壇幀畫) 하단(下壇)은 영가(靈駕)천도의 영단정화(靈壇幀畫)가 그것이다. 이를 다시 정화(幀畫)가 봉안(奉安)된 전각(殿閣)에 따라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이라 하겠다.

#### 1) 상단정화(上壇幀畫)

(1) 대웅전후불정화(大雄殿後佛幀畫) (2) 화엄전후불정화(華嚴殿後佛幀畫) (3) 극락전후불정화(極樂殿後佛幀畫) (4) 약사전후불정화(藥師殿後佛幀畫) (5) 용화전후불정화(龍華殿後佛幀畫) (6) 영산전(靈山殿) (7) 관음전후불정화(觀音殿後佛幀畫) 등(等)의 불보살봉안전각(佛菩薩奉安殿閣)의 불상(佛像) 후면(後面)에 현괘(懸掛)하는 정화(幀畫)

#### 2) 중단정화(中壇幀畫)

봉안전각(奉安殿閣)인 신중전(神衆殿)이나 각(閣)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고 법당내(法堂內) 불단(佛壇)의 향우(向右)나 향좌(向左)의 벽면(壁面)에 신중단(神衆壇)을 설치(設置)하고 신중정화(神衆幀畫)를 현괘(懸掛)한다.

#### 3) 하단정화(下壇幀畫)

(1) 명부전(冥府殿)(지장전(地藏殿) 혹(或)은 감로전(甘露殿)) (2) 법당내(法堂內) 불단향우(佛壇向右)나 향좌(向左)에 영단(靈壇)을 설치(設置)하고 영단정화(靈壇幀畫)를 현괘(懸掛)한다.

#### 4) 기타(其他)

응진전(應眞掛), 나한전(羅漢殿), 산신각(山神閣), 칠성각(七星閣), 독성각(獨聖閣), 현왕단(現王壇), 귀왕단(龜王壇) 등(等)의 정화(幀畫)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삼단정화(三壇幀畫)에서의 분화(分化)내지 상호(相互) 관련성에서 살필 수 있는 것으로 뒤에서 다시 상술(詳述)하기로 한다.

그런데 상기(上記)한 정화(幀畫)를 종합사찰(綜合寺刹)의 성격(性格)을 지니는 대사원(大寺院)에서는 그 전각(殿閣)과 아울러 모두 봉안(奉安)하고 있으나 미사(未寺) 등(等)의 소규모(小規模)의 사원(寺院)에서는 몇몇 특장적(特徵的)인 전각(殿閣)과 정화(幀畫)만을 봉안(奉安)하고 있다(주법당(主法堂)을 대웅전(大雄殿)이거나 극락전(極樂殿), 관음전(觀音殿) 하나나만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소규모(小規模)의 사원(寺院)이라도 불교신앙(佛教信仰)의 삼단법구조(三段法構造)에 따라<sup>4)</sup> 상(上)·중(中)·하단(下壇)의 정화(幀畫)는 각기(各己) 구비(具備)하고 있음이 통례(通例)로 되어 있다.

## (二) 정화(幀畵)의 유형구조(類型構造)

정화(幀畵)란 불교경전(佛敎經典)의 내용(內容)을 도설화(圖說化)한 것이라 할 수 있겠으나 상기(上記)한 바에 의(依)하면 무척 다양(多樣)한 형태(形態)로 나타나고 있어 우리의 머리를 혼란(混亂)시키게 한다. 그러면 이와 같이 다양(多樣)한 형태(形態)로 나타나는 각종(各種)의 정화(幀畵)에서 우리는 어떤 원리적(原理的)인 체계(體系)를 찾을 수 없을 것인가?

불교(佛敎)는 원래(原來) 그 절대적(絶對的)인 경지(境地)에서 보면 형상(形像)도 형체(形體)도 없는 것이어서 그를 표현(表現)할 수 없는 것이겠으나 부득이 그를 표현(表現)하고자 할 때에는 가상(假相)의 위에서 표현(表現)한다. 불교(佛敎)에서는 흔히 불(佛)을 법신불(法身佛) 보신불(報身佛) 화신불(化身佛)의 삼신불(三身佛)로 나누고 있는데 이중(中) 화신불(化身佛)은 진실(眞實)의 불신(佛身)인 법(法)·보(報) 이신(二身)의 표현(表現)이라 할 수 있게 된다. 즉(卽) 이는 가상(假相)의 불(佛)인 것으로 석가(釋迦)를 일러 화신(化身)이라 하며 불법표현(佛法表現)의 최초(最初)라 하게 되는 것이다. 가상(假相)에는 반드시 시종(始終)이 있는 것이어서 가상불(假相佛)인 석존(釋尊)은 결국(結局) 입멸(入滅)하고 법신불멸(法身不滅)의 설법(說法)을 남기게 된다. 그리고 다시 이와 같은 설법내용(說法內容)은 또한 가상(假相)의 문자(文字)에 의거경전(依據經典)의 성립(成立)을 보게 된다. 한편 법신불멸(法身不滅) 법신상주(法身常住)의 불심(佛心)은 또한 회화상(繪畵上)에도 나타나게 되는데 그중(中) 보다 일찍 이룩된 것으로 흔히 아도세왕(阿闍世王)의 신하(臣下) 우사(雨舍)의 여래본행지도(如來本行之圖)를 손꼽게 된다.<sup>5)</sup> 이는 석가(釋迦)의 일생(一生)을 팔상(八相)으로 나누어 그린 것으로 일명(一名) 팔상도(八相圖)라고도 한다. 여기 팔상(八相)이란<sup>6)</sup> 제일(第一), 도솔래의상(兜率來儀相), 제이(第二), 비람강생상(毘藍降生相), 제삼(第三), 사문유관상(四門遊觀相), 제사(第四), 유성출가상(踰城出家相), 제오(第五)·설산수도상(雪山修道相), 제육(第六)·수하강마상(樹下降魔相), 제칠(第七)·녹원전법상(鹿苑轉法相), 제팔(第八)·쌍림열반상(雙林涅槃相)을 가르키는데 명칭상(名稱上)으로는 경론(經論)에 다소(多少) 상위(相違)가 있으나 대체(大體)로 강도솔(降兜率) 태태강탄(托胎降誕) 출가(出家) 강마(降魔) 성도(成道) 설법(說法) 열반(涅槃)이라 하겠다. 이에 의(依)하면 석가(釋迦)의 일생(一生)은 천(天)·인(人)·불(佛)의 삼상(三相)에 의(依)에 성립(成立)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sup>7)</sup> 이 중(中) 불상(佛相)은 성도상(成道相), 설법상(說法床), 열반상(涅槃相)인 것이다. 보통(普通) 석가(釋迦)의 설법내용(說法內容)을 경전상(經典上)으로 화엄경(華嚴經), 아함경(阿含經), 방등경(方等經), 반약경(般若經) 열반경(涅槃經)은 석가생애상(釋迦生涯上)에서 현현(顯現)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卽) 화엄경(華嚴經) 석가성도(釋迦成道)의 불심(佛心)을 법화경(法華經)은 전법론(轉法輪)을 열반경(涅槃經)은 입열반(入涅槃)의 불심(佛心)을 각각(各各) 개현(開顯)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한국사원(韓國寺院) 전래(傳來)의 불정(佛幀)도 이와같은 석가(釋迦) 입상(入相)의 생애중(生涯中) 후삼상(後三相)인 불상(佛相)을 중심(中心)한 화엄경(華嚴經) 법화경(法華經)의 내용(內容)을 도설화(圖說化)한데 중점(重點)을 두고 있음에 주목(注目)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結局) 불교사원(佛敎寺院)의 정화(幀畵)는 불교정화(佛敎幀畵)가 중심(中心)이 되어지고 이 후불정화(後佛幀畵)에서 다시 분화(分化)되어 다양(多樣)한 각종정화(各種幀畵)로 전개발전(展開發展)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필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후불정화(後佛幀畫)의 내용(內容)이 주(主)로 화엄경(華嚴經) 법화경(法華經)에 연유되고 있다는 것이다.<sup>8)</sup>

화엄경(華嚴經)은 석존성도(釋尊成道)의 상(相)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라 한다. 즉(卽), 인간석가(人間釋迦)가 정각(正覺)을 이루고 눈뜬 세계(世界)는 한없는 세계(世界)가 한없이 깊은 광명(光明)에 의(依)해 비추어지고 구명(究明)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세계(世界)를 연화장세계(蓮華藏世界)라 하고 근본불(根本佛)을 비로사나불(毘盧舍那佛)이라 한다. 그런데 이와같은 화엄경(華嚴經)이 연화장세계(蓮華藏世界) 즉(卽) 석존(釋尊)의 성도상(成道相)이 정화(幀畫)를 그려지고 있음을 한국사원(韓國寺院)에서 가끔 발견(發見)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우리는 화엄정화(華嚴幀畫) 또는 화엄변상도(華嚴變相圖)라 하고 화엄전(華嚴殿) 주불(主佛) 뒤에 모셔졌을 때 화엄전(華嚴殿) 후불정화(後佛幀畫)라 한다.

다음은 법화경(法華經)의 경우를 보자. 법화경(法華經)은 석존(釋尊) 생애(生涯) 팔상(八相)의 위에서 보면 전법륜상(轉法輪相)에 해당된다고 함은 전술(前述)한 바이나 이와같은 전법륜상(轉法輪相) 즉(卽) 석존설법상(釋尊說法相)이 그대로 정화(幀畫)로 그려져 있음을 우리는 자주 찾아 볼 수 있게 되는데 이를 일러 영산회상(靈山會上)이라 하게 된다. 영산(靈山)이란 영취산(靈鷲山)의 준말로 석존(釋尊) 법화경설법장소(法華經說法場所)를 가르키고<sup>9)</sup> 영산회상(靈山會相)이란 영산(靈山)에서의 법회(法會)모임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사원(韓國寺院)의 후불정화(後佛幀畫)는 이와같이 석존설법(釋尊說法)의 광경(光景)을 도설화(圖說化)한 것이 거의 대중(大宗)을 이루고 있다는 데 주의력(注意力)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 다음에 화엄정화(華嚴幀畫)와 영산회상(靈山會相) 후불정화(後佛幀畫)를 각기(各己) 화엄경(華嚴經) 법화경(法華經)의 내용(內容)에 의거(依據) 살펴보고 이와같은 내용(內容)이 다시 어떻게 분화(分化)되고 새로히 전개발전(展開發展)되는 것인가를 구명(究明)해 봄으로서 한국불교정화(韓國佛教幀畫)의 구조적(構造的) 성격(性格)을 살펴보기로 하자.

### 三. 韓國佛教幀畫의 構造物 性格(한국불교정화의 구조물 성격)

한국불교정화(韓國佛教幀畫)의 유형구조(類型構造)는 화엄경(華嚴經)과 법화경(法華經)에 의거(依據)함이 중심구조(中心構造)를 이룬다고 함은 전술(前述)한 바이나 이제 다시 동경전(同經典)의 구조(構造)를 분석(分析)함에 의(依)해 정화내용(幀畫內容)에 대(對)한 구조적(構造的) 성격(性格)을 살펴 볼까 한다.

#### 1) 화엄경(華嚴經)

화엄경(華嚴經)은 그 경명(經名)을 구족(具足)하여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이라 하고 한역본(漢譯本) 삼본(三本)이 현존(現存)한다.

(가) 동진(東晉) 의희(義熙)14년(418) 천축승(天竺僧) 불타발타라삼장(佛跋跋陀羅三藏)이 번역한 육십화경(六十華經)

(나) 당(唐) 칙천무후(則天武後) 성력이년(聖歷二年)(699)에 우전국승(于闐國僧) 실우난타삼장(實又難陀三藏)이 번역한 팔십화엄(八十華嚴)

(다) 당덕종(唐德宗) 정원십이년(貞元十二年)(796) 류빈국승반약삼장(劉賓國僧般若三藏)이 번역한 사십화엄(四十華嚴) 이는 입법계품(入法界品)만을 별역(別譯)한 것이다.

이상(以上) 삼본(三本)의 화엄경중(華嚴經中) 진역(晉譯) 육십권(六十卷)의 화엄경(華嚴經)을 중심(中心)으로 그 내용(內容)의 구조(構造)를 분석(分析)해 보면

1. 적멸도장(寂滅道場)……세간정안품(世間淨眼品) (第1)

노사나불품(盧舍那佛品) (第2)

적멸도장(寂滅道場)이란 보리수하(菩提樹下)의 석존성도(釋尊成道)의 장소(場所)로 기타(其他) 보리수(菩提樹) 기좌(基座)는 성도(成道)의 신력(神力)에 의(依)해 일체(一切)의 수묘(殊妙)를 현출(現出)한 것이다.

2. 보광법당(普光法堂)……일여명호품(一如名號品)(第3), 사제품(四諦品)(第4), 여래광명각품(如來光明覺品)(第5), 보살명난품(菩薩名難品)(第6), 정행품(淨行品)(第7), 현수보살품(賢首菩薩品)(第8)

이상(以上)의 6품은 적멸도장(寂滅道場)과 같은 도장(道場)의 보광법당(普光法堂)에서 설(說)한 것으로 이는 보살도(菩薩道)의 기점(基點)이며 근본(根本)인 신(信)을 설(說)한 것인데 前3품은 소신(所信)의 과(果)인 여래(如來)의 신(身)·구(口)·의(意)에 대(對)해 後3품은 신(信) 자체(自體)에 관(關)한 해(解)·행(行)·증(證)을 설(說)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 도리천관(忉利天官)……불승수미정품(佛昇須彌頂品)(第9), 보살운집묘승전상설게품(菩薩雲集妙勝殿上說偈品)(第10), 보살십주품(菩薩十住品)(第11), 범행품(梵行品)(第12), 초발심보살공덕품(初發心菩薩功德品)(第13), 명법품(明法品)(第14)

이는 제석천(帝釋天)의 주발(住發)인 도리천(忉利天)의 설법(說法)으로 제석(帝釋)은 묘승전상(妙勝殿上)의 도자좌(忉子座)를 설치(設置)하고 온갖 힘을 다하여 장엄(莊嚴)하고 불(佛)을 영접(迎接)한다. 이에 보살도(菩薩道)가 설(設)해지는데 도리천(忉利天)의 육품(六品)에서는 주(住)가 문제(問題)가 된다. 즉(卽) 사사무애(事事無礙), 상즉상입(相卽相入) 일즉일절일절즉일(一卽一切一切卽一)이 된다고 하는 화엄(華嚴)의 근본관념(根本觀念)에 의(依)해

4. 야마천관(夜摩千官)……불승야마천관 자재품(佛昇夜摩天官 自在品)(第15), 야마천관보살설게품(夜摩天官菩薩說偈品)(第16), 공덕 화취보살십행품(功德華聚菩薩十行品)(第17), 보살십무진장품(菩薩十無盡藏品)(第18)

前2回에서는 신(信)과 주(住)가 설(說)해지는데 반(反)해 여기서는 행(行)이 문제(問題)가 된다.

5. 도솔천관(兜率天官)……여래도솔천관일절보전품(如來兜率天官一切寶殿品)(第19), 도솔천관보살운집찬불품(兜率天官菩薩雲集讚佛品)(第20), 금강당보살십회향품(金剛幢菩薩十回向品)(第21)

도솔천(兜率天)은 미륵보살(彌勒菩薩)의 주발(住發)로 여기서는 회향(回向)이 문제(問題)가 된다.

6. 타화천관(他化天官)……보살주발품(菩薩住發品)(第27), 불불사의법품(佛不思議法品)(第28), 여래상해품(如來相海品)(第29), 불소상광명공덕(佛小相光明功德品)(第30), 보현보살행품(普賢菩薩行品)(第31), 보왕여래성기품(寶王如來性起品)(第32)

여기서는 보살도(菩薩道)의 요체(要諦)가 중요문제(重要問題)가 된다.

7. 보광법당중회(普光法堂重會) 일일리세간품(一一離世間品)(第33)

다. 「적멸도장(寂滅道場)의 보광법당(普光法堂)에서 연화장(蓮華藏)의 보수자좌(寶師

子座)에 앉아 등정각(等正覺)을 이루다」로 시작(始作)되는데 이때 무수(無數)한 보살(菩薩)이 운집(雲集)한다. 보현보살(普賢菩薩)이 불화엄삼매(佛華嚴三昧)에 들고 또한 삼매(三昧)에서 일어나면 보혜보살(普慧菩薩)이 행법(行法)에 관(關)하여 2百의 문제(問題)를 제기(提起)하면 보현(普賢)은 1문(問)에 십종(十種)의 답(答)을 하여 총계(總計) 2千의 행법(行法)을 현시(顯示)한다.

#### 8. 중각강당일일입법계품(重閣講堂一一入法界品)(第34)

여기서는 5百의 보살중(菩薩中) 보현보살(普賢菩薩)과 문수수리보살(文殊帥利菩薩)을 상수(上首)로 하고 본회(本會)가 시작(始作)되는데 이는 전경(全經)의 3분지(分之) 1의 부분(部分)을 차지하고 선재동자(善財童子)의 구도편력(求道遍曆)으로 보살도(菩薩道)를 설(說)하고 있다.

이상(以上) 8회(會)의 설법(說法)을 보면 前2會와 後2會는 지상(地上)의 설법(說法)이요 중간(中間) 사회(四會)의 설법(說法)은 천상(天上)의 설법(說法)이다. 또한 이를 인격상(人格上)으로 보면 보살(菩薩) 천(天) 인(人)에 대(對)한 설법(說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注意)해야 될 것은 8처(處)의 설법광경(說法光景)과 내용(內容)은 모두 석존정각(釋尊正覺)에서 현현(顯現)되어진 자내증(自內證)이란 점(點)을 잊어서는 안된다. 즉(卽) 정각(正覺)의 눈에 비치인 우주(宇宙)의 근본진리(根本眞理)란 것을 말이다. 여기 이와같이 석존(釋尊) 자내증(自內證)의 세계(世界)를 도설화(圖說化)한 것이 화엄정화(華嚴眞畫)인 것이다.

그런데 이와같은 화엄정화(華嚴眞畫)에서 자내증(自內證)의 선우(善友)인 보살(菩薩)과 천선중(天仙衆)은 다시 그 기능(機能)이 독립(獨立)되어 신중정화(神衆眞畫)로 분화(分化)되어 진다. 신중단의식(神衆壇儀式)에서 화엄성중(華嚴聖衆)이라 함은 이를 말하는 것으로<sup>10)</sup> 즉(卽), 화엄경(華嚴經)에서 말하는 적멸도장(寂滅道場)에서 정각(正覺)을 이룬 것은 동시(同時)에 일체(一切)의 도장(道場)에 있어 정각(正覺)을 이룬 것으로 여기에는 보현보살(普賢菩薩)의 무수(無數)한 보살(菩薩)이 있고 또 금강력사등(金剛力士等) 삼십삼중(三十三衆)이 있는데 이를 아래에서 소개(紹介)하면

① 대보살(大菩薩)…불(佛)의 문우(問友), ② 금강력사(金剛力士)…대서원(大誓願)을 일으켜 제불(諸佛)을 시위(侍衛)한다. ③ 도장신(道場神)…모두 선불(先佛)에게 원행(願行)을 조립(造立)한다. ④ 용신(龍神)…항상 여래(如來)를 위(爲)하여 법당(法堂)을 장엄(莊嚴)한다. ⑤ 지신(地神)…과거불(過去佛)의 처소(處所)에 이어 널리 원행(願行)을 닦는다. ⑥ 수신(樹神)…모두 널리 대희보조(大喜普照)를 성취(成就)한다. ⑦ 약초신(藥草神)…모두 널리 대비보조(大悲普照)를 성취(成就)한다. ⑧ 곡신(穀神)…대희성취(大喜成就), ⑨ 하신(河神)…항상 잘 정근(精勤)하여 중생(衆生)을 이익(利益)되게 한다. ⑩ 해신(海神) 불(佛)의 무량(無量)의 공덕해(功德海)로써 스스로 충만(充滿)한다. ⑪ 화신(火神)…널리 중생(衆生)을 위(爲)하여 암명(闇冥)을 조제(照除)한다. ⑫ 풍신(風神)…모두 능히 중생(衆生)을 화합(和合)하고 분산(分散)되지 않게 한다. ⑬ 허공신(虛空神)…마음이 모두 무구견고정묘(無垢堅固淨妙)하게 한다. ⑭ 주방신(主方神)…방향(方向)을 맡은 신(神)으로 모두 능히 일체중생(一切衆生)을 비추운다. ⑮ 주야신(主夜神)…조도(助道)의 법(法)으로써 심중(深重)히 애락(愛樂)한다. ⑯ 주서신(主書神)…모두 널리 정법(正法)의 장엄(莊嚴)을 신무(信無)한다. ⑰ 아수라신(阿修羅神)(귀신(鬼神))…널리 잘 교만(驕慢) 방일(放逸)을 항복(降伏)하게 한다. ⑱ 가류라왕(迦留羅王)(묘혈도(妙翅島))…방편(方便)을 성취(成就)하여 널리 중생(衆生)을 이(利)롭게 한다. ⑲ 긴나라왕(緊那羅王)

(가창(歌唱)을 잘 하는 의인(疑人))…널리 중생(衆生)에게 정근권발(精勤勸發)하고 능(能)히 법락(法樂)을 갖도록 한다. ㉔ 마진라가왕(摩瞋羅迦王)(대접(大蝶))…널리 중생(衆生)을 위(爲)하여 제의강(諸疑綱)을 제거(除去)한다. ㉕ 구반다왕(鳩槃荼王)(사람의 정기(精氣)를 빼는 귀(鬼))…모두 능(能)히 무애(無礙)의 법문(法門)을 수습(修習)케 한다. ㉖ 귀신왕(鬼神王)…널리 잘 일체중생(一切衆生)을 근호(勤護)한다. ㉗ 월신천자(月身天子)…부진런히 지혜(智慧)로써 널리 중생(衆生)의 무상보심(無上寶心)을 발(發)하게 한다. ㉘ 일천자(日天子)…모두 청정선근(淸淨善根)을 성취(成就)하여 항상 일체중생(一切衆生)을 요익(饒益)케 한다. ㉙ 삼십삼천왕(三十三天王)(도리천(忉利天))…모두 청정(淸淨)의 선업(善業)을 구족(具足)하여 잘 중생(衆生)으로 하여금 정묘(淨妙)의 처소(處所)에 생(生)하게 한다. ㉚ 야마천왕(夜摩天王)…모두 근수(勤修)하여 환희(歡喜)를 나게 하고 지정(知定)을 신락(信樂)케 한다. ㉛ 아술천왕(兒率天王)…모두 염불삼매(念佛三昧)를 성취(成就)한다. ㉜ 화락천왕(化樂天王)…모두 적정(寂靜)의 법문(法門)을 성취(成就)하고 중생(衆生)을 조복(調伏)한다. ㉝ 타화자석천왕(他化自在天王)…널리 모두 자우(自右)의 정법(正法)을 근수(勤修)한다. ㉞ 불가사의대범(不可思議大梵)(색계(色界)의 사천(四天)· 즉(卽)· 초선(初禪), 이선(二禪)· 삼선(三禪)· 사선중(四禪中) 초선천(初禪天)의 주(主))…모두 대비구족(大悲具足)하여 중생(衆生)을 도탈(度脫)하고 열너(熱惱)를 조제(照除)하고 청량유연(淸涼柔軟)하게 한다. ㉟ 광음천자(光音天子)(색계(色界) 이선(二禪)의 주(主))…희광적정(喜光寂靜)의 법문(法門)에 안주(安住)한다. ㊱ 편정천(遍淨天)(색계(色界) 삼선(三禪)의 주(主))…항상 중생(衆生)으로 하여금 광악(廣樂)에 안주(安住)케 한다. ㊲ 과실천자(果實天子)(색계사선(色界四禪)에 속(屬)하는 팔처중(八處中) 전삼처(前三處)의 주(主))…모두 적정(寂靜)의 의문(意門)에 주(住)함 ㊳ 정거천(淨居天)(색계사선중(色界四禪中) 후오처(後五處)에 주(住)하는 성자(聖者)는 욕계(欲界)에 집착(執着)을 끊어 다시 욕계(欲界)로 돌아오지 않으므로 정거천(淨居天)이라 한다)…무상평등(無相平等) 법계(法系)를 닦는다.<sup>11)</sup>

이상(以上)의 제중(諸衆)은 인도(印度) 당시의 토속신(土俗神)이겠으나 석존(釋尊)이 정각(正覺)을 이루고 보니 일체(一切)의 유정(有情)은 법계(法界)를 장엄(莊嚴)하는 것으로 불(佛)과 중생(衆生)과에 주반구족(主伴具足)하여 원융무애(圓融無礙)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같은 제신중(諸神衆)은 기타(其他)의 다른 경전(經典)에도 수호신(守護神)으로 많이 나타나며<sup>12)</sup> 대승불교(大乘佛敎)가 발전(發展)함에 있어 또한 지역(地域)을 달리함에 있어 더욱 첨가 되고 또 분화(分化)되어 호법선신중(護法善神衆)으로서의 신중신앙(神衆信仰)을 낳고 이같은 신앙(信仰)에 의거(依據) 신중정화(神衆淸畫)의 발생(發生)을 보게 된다.<sup>13)</sup>

## 2) 법화경(法華經)

법화경(法華經)의 한역본(漢譯本)은 축법호역(竺法護譯)의 정법화경(正法華經)과 구마라십역(鳩摩羅什譯)의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도나굴다역(闍那崛多譯)의 첨품묘법연화경(添品妙法蓮華經)의 삼역(三譯)이 있으나 그 중(中) 우리나라에서는 주(主)로 불진시(佛秦時)(406) 구마라십(鳩摩羅什)이 번역한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이 가장 많이 유통(流通)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구마라십역(鳩摩羅什譯)의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은 칠권(七卷) 27품(品)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뒤 남제(南齊)의 무제시(武帝時)(483~493) 법헌(法獻)이 고창국(高昌國)에서 제파달다품(提婆達多品)을 전래(傳來) 번역 첨가하여 28품(品)이 되었고 보문품(普門品)의 중송(重頌) 26개(偈)가 빠졌던 것을 수문



제(隋文帝) 1년(601) 도나굴다(闍那崛多)가 첨품법화경(添品法華經)을 번역하게 되어 이것에 의지 보문품(普門品)의 중송(重頌)을 더하여 현행본(現行本)이 성립(成立)되었다. 이렇게 하여 현행(現行) 법화경(法華經)은 서분(序分) 정종분(正宗分) 유통분(流通分)의 삼분법(三分法)에 의거(依據) 분석(分析)해 보기로 한다. 서분(序分) 정종분(正宗分) 유통분(流通分) 등(等)의 삼분법(三分法)은 모든 경전(經典)의 구조(構造)에 해당되는 것이나 즉(卽) 서분(序分)에서 그 경전(經典)을 설(說)하는 인연(因緣)을 설(說)하고 정종분(正宗分)에서는 경(經)의 핵심을 유통분(流通分)에서는 그 경전(經典)의 공덕(功德)과 이익(利益)을 설(說)한다. 그러나 법화경(法華經)은 그 위에 본문적문(本門迹門)으로 이분(二分)하고 다시 서정류(序正流)의 삼분법(三分法)을 각각(各各) 적용하고 다시 이문(二門)을 합(合)쳐 서정류(序正流)의 삼분법(三分法)으로 다시 재구성(再構成)된 것으로 해석함에 주의(注意)하여야 한다. 법화경(法華經)은 이십팔품중(二十八品中) 서품(序品)에서 안락행품(安樂行品)까지의 십사품(十四品)을 적문(迹門)으로 하고 그 후(後)의 십사품(十四品)을 본문(本門)으로 하고 있다. 천태지의(天台智顓)에 의(依)하면 구원실성(久遠實成)의 본문(本門)은 적문(迹文)의 현(現)의 실현(實現)이라 하여 이문(二門)의 관계성(關係性)을 밝혀 놓고 있다. 그러면 다음에 천태지의(天台智顓)의 법화문구(法華文句)에 의거법화경(依據法華經)의 구조(構造)를 먼저 적문(迹門) 본문(本門)의 서(序) 정(正) 법(法)의 삼분구조(三分構造)와 아울러 적문본문(迹門本門)을 합친 서(序) 정(正) 류(流)의 삼분법(三分法)에 따른 구조(構造)를 분석(分析)해 보기로 한다.

### (一) 적문(迹門)

① 서분(序分)…서품(序品) 경(經)의 인연(因緣)을 설(說)함.

② 정종분(正宗分)…약(略)하여 삼(三)을 열어 일(一)을 현현(顯現)한다. 그리고 널리 삼(三)을 열어 일(一)을 현현(顯現)한다(일(一)은 일승(一乘) 삼(三)은 삼승(三乘))는 것인데 전자(前者)는 방편품(方便品) 후자(後者)는 법설주(法說周)의 비유품(譬喩品)과 비유주(譬喩周)의 신해품(信解品) 약초유품(藥草喩品) 수기품(授記品) 그리고 인연주(因緣周)의 화성유품(化城喩品) 오백제자수기품(五百弟子授記品) 수학무학입기품(授學無學入器品) 등(等)이다.

③ 유통분(流通分)

가) 홍통(弘通)의 공(功)의 깊이를 밝혀 미래(未來)의 유통(流通)을 권(勸)하는 것으로 법수품(法帥品)과 견보탑품(見寶塔品).

나) 왕사(往事)를 들어 유통(流通)을 증(證)하는 것으로 제파달다품(提婆達多品)

다) 타방(他方)과 차토(此土)의 유통(流通)을 권(勸)하는 것으로 권지품(勸持品)

라) 초심자(初心者)를 위(爲)한 안락행(安樂行)을 설(說)하는 것으로 안락행품(安樂行品)

### (二) 본문(本門)

가) 서분(序分)~종지용출품(從地涌出品)

나) 정종분(正宗分)~약(略)하여 가까운 것을 열어 먼 것을 현현(顯現)하는 종지용출품(從地涌出品), 널리 가까운 것을 열어 먼 것을 현현(顯現)하는 여래수량품(如來壽量

品), 분별공덕품(分別功德品), 수희공덕품(隨喜功德品)

다) 유통분(流通分)~멸후(滅後)의 공덕(功德)을 설(說)하여 유통(流通)시키는 수희공덕품(隨喜功德品), 법수공덕품(法帥功德品), 상불경보살품(常佛輕菩薩品), 유통(流通)을 부촉(付囑)하는 축루유통(囑累流通)의 여래신력품(如來神力品) 축루품(囑累品), 화타유통(化他流通)의 약왕보살본사품(藥王菩薩本事品), 관세음보살보문품(觀世音菩薩普門品), 묘음보살품(妙音菩薩品, 타라니품(陀羅尼品) 묘장엄왕본사품(妙莊嚴王本事品) 자행유통(自行流通)의 보현보살근발품(普賢菩薩勤發品).

이를 다시 적(迹) 본문(本門)의 전체구조(全體構造)에서 보면 서분(序分)의 서품(序品) 정종분(正宗分)은 적문(迹門)의 방편품(方便品)과 유통분(流通分) 그리고 본문(本門)의 서분(序分)과 정종분(正宗分)으로 되어 있고 유통분(流通分)은 본문(本門)의 유통분(流通分)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상(以上)의 주화경구조(注華經構造)에서 보면 본경(本經)이 갖는 특징(特徵)은 경(經)의 핵심(核心)인 정종분(正宗分)의 부분(部分)은 적고 오히려 경(經)을 스스로 독송(讀誦)하고 수지(受持)하고 또한 서사(書寫)하는 등(等)과 타인(他人)을 위(爲)해 설(說)하고 공양찬탄(供養讚歎)하고 육파라밀(六波羅蜜)을 행(行)하는 자(者)가 받는 공덕(功德)설(說)한 유통분(流通分)의 부분(部分)이 큰 비중(比重)을 차지하고 있는데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주화경신앙(注華經信仰)이 성행(盛行)하는 이유(理由)도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본경(本經)을 독송수지(讀誦受持), 공양찬탄(供養讚歎)하는 자(者)가 받는 공덕(功德)을 약왕보살본사품(藥王菩薩本事品) 第23의 예(例)에서 좀 더 구체적(具體的)으로 살펴보면 본경(本經)은 일체중생(一切衆生)을 잘 구제(救濟)하고 일체중가생(一切衆家生)으로 하여금 제고뇌(諸苦惱)에서 벗어나게 하고 또한 이 경(經)은 능(能)히 일체중생(一切衆生)을 요익(饒益)하여 그 원(願)을 충만(充滿)하게 하고 병(病)든 자(者)를 낫게하고 어두움을 밝혀주는 등(等)의 많은 이익(利益)을 설(說)하고 있다. 이는 전술(前述)한 석가전법륜상(釋迦轉法輪相)으로서의 성격(性格)을 법화경(法華經)의 내용(內容)이 더욱 구체적(具體的)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 무척 주목(注目)을 끌게 한다. 그러면 이제 이와같은 특징(特徵)을 갖는 법화경(法華經)이 어떻게 도설화(圖說化)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법화경(法華經)의 도설(圖說)은 영산회상(靈山會相)이라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영산법회(靈山法會)의 광경(光景)을 도설화(圖說化)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게 된다. 이는 법화경(法華經)의 서품(序品)에서 그 근거(根據)를 살필 수 있는데 즉(卽), 영산회상불정(靈山會相佛幀)은 석존(釋尊)이 보좌(寶座)에 앉아 보살중(菩薩衆)과 십대제자(十大弟子)를 앞에 하고 설주(說注)를 하며 호법선신(護法善神)이 사대왕(四大王)이나 팔부신장(八部神將)이 도장(道場)을 호위(護衛)하고 천선녀(天仙女)가 그 광경(光景)을 찬탄(讚歎)하는 것으로 그 구도내용(構圖內容)이 구성(構成)되어있다.<sup>14)</sup> 이를 법화경(法華經) 서품(序品)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內容)과 잘 부합(付合)된다.

妙法蓮華經序品第一

묘법연화경서품제일

如是我聞 一時佛在 王舍城 耆闍山中 與大比丘衆 萬二千人俱 皆是阿羅漢 諸漏已盡 無復煩惱  
여시아문 일시불재 왕사성 자굴산중 여대비구중 만이천인구 개시아라한 제루기진 무부번

惱 逮得已利 盡諸有結 心得自在 其名曰 阿若橋陳如 摩訶迦葉 優樓頻螺迦葉 伽伽迦葉 那提迦

너 채득기리 진제유결 심득자재 기명일 아약교진여 마가가엽 우루빈라가엽 가야가엽 나제  
가

葉 舍利弗 大目捷連 摩訶迦放延……如是衆 所知識 大阿羅漢等 復有學無學二千人 摩訶波闍

엽 사리불 대목첩련 마사가방연……여시중 소지식 대아라한등 부유학무학이천인 마사파도  
파

提比丘尼 與眷屬六千人俱……菩薩摩訶薩八萬人 皆於阿耨多羅三藐三菩提 不退轉 皆得陀羅尼  
제비구니 여권속육천인구……보살마사살팔만인 개어아누다라삼막삼보제 불퇴전 개득타라니

樂設辯才……名稱普聞 無量世界 能度無數 百千 百千衆生 其名曰 文殊帥利菩薩觀世音菩薩得  
악설변재……명칭보문 무량세계 능도무수 백천 백천중생 기명일 문수수리보살관세음보살득

大勢菩薩 常精進菩薩 不休息滿薩 藥王菩薩 勇施菩薩 寶月菩薩 月光菩薩 普月菩薩 大力菩薩  
대세보살 상정진보살 불휴식만살 약왕보살 용시보살 보월보살 월광보살 보월보살 대력보살

無量力菩薩……彌勤菩薩 寶積菩薩 導師菩薩 如是等菩 摩訶薩 八萬人俱 彌時釋提桓因 與其  
무량력보살……미근보살 보적보살 도수보살 여시등보 마사살 팔만인구 미시석제환인 여기

眷屬 二萬天子俱 復有名曰天子 普香天子 寶光天子 四大天王 與其眷屬 三萬天子俱 自在天子  
권속 이만천자구 부유명일천자 보향천자 보광천자 사대천왕 여기권속 삼만천자구 자재천자

大自在天子 與其眷屬 三萬天子俱 娑婆世界主 梵天王 尸棄大梵 光明大梵等 與其眷屬 萬二千  
대자재천자 여기권속 삼만천자구 사과세계주 범천왕 시엽대범 광명대범등 여기권속 만이천

天子俱 有八龍王 難陀龍王跋難龍王…等 各與若干 百千眷屬俱 有四緊那羅王 注緊那羅王……  
천자구 유팔룡왕 난타룡왕발난룡왕…등 각여약간 백천권속구 유사긴나라왕 주긴나라왕……

百千眷屬俱 各禮佛足退坐一面 爾時世尊 四衆圍遶 供養恭敬 尊重讚歎 爲諸菩薩 說大乘經 名  
백천권속구 각례불족퇴좌일면 이시세존 사중위요 공양공경 존중찬탄 위제보살 설대승경 명

無量義 教菩薩法 佛所護念 佛說此經已 結跏趺坐 入於無量義處三昧 身心不動 是時天雨 曼陀

무량의 교보살법 불소호념 불설차경기 결가부좌 입어무량의처삼매 신심부동 시시천우 만타

羅華 摩訶曼殊沙華 而散佛上 及諸大衆 普佛世界 天種震動 爾時會中 比丘 比丘尼 優婆塞 優  
라화 마사만수사화 이산불상 급제대중 보불세계 천중진동 이시회중 비구 비구니 우파색 우

婆夷 天·龍·夜叉 乾闥婆 阿修羅 伽樓羅 緊那羅 摩睺羅伽 人非人 及諸小生 轉輪聖王 是諸  
파이 천·용·야차 건달파 아수라 가누라 긴나라 마후라가 인비인 급제소생 전륜성왕 시제

大衆 得未曾有 歡喜合掌 一心觀佛 爾時佛 放眉間白毫相光 照東方萬八千世界 摩不周遍 下至  
대중 득미회유 환희합장 일심관불 이시불 방미간백호상광 조동방만팔천세계 마블주편 하지

鼻地獄 上至阿迦尼咤千……

비지옥 상지아가니타천……

모든 주회(注會)와 설자(說者)와 문자(聞者)에 의(依)해 성립(成立)한다. 법화경(法華經)도 예외(例外)는 아니어서 이 원칙(原則)을 따르고 있다. 여기 설자(說者)는 설법(說法)의 주체(主體)인 석존(釋尊)이요 문자(聞者)는 만이천인(萬二千人)의 비구중(比丘衆)과 운집(雲集)하는 보살중(菩薩衆)이다. 그리고 그 외적규정(外的規定)으로 설법(說法)의 시(時)와 처(處)가 있게 되며 또한 외적규정(外的規定)으로 설자(說者)와 청자간(聽者間)의 영해여부(領解如不)가 없어서는 안된다. 법화경(法華經)의 설시(設時)는 어느 한 때라고 하고 있고 설처(說處)는 왕사성(王舍城) 기도굴산(耆闍崛山)(영취산(靈鷲山))이라 하고 있다. 그리고 여시(如是)(신(信)) 아문(我聞)을 기구(起句)로 하고 있음은 경전(經典)에 있어 청자(聽者)의 영해(領解)를 대표(代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은 경전(經典)에 있어서의 신(信) 문(聞)·주(主)·중시(衆時)·처(處)를 경(經)의 육성취(六成就)라 하고 있거니와 여기 처(處)와 중(衆)이란 실(實)은 하등(何等)의 외적(外的) 사정(事情)에 의(依)함이 없이 불자증(佛自證)을 현현(顯現)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본경(本經)을 설(說)하는 석존(釋尊)은 그 소설(所說)의 법(法)과 더불어 영원(永遠)히 현재(現在)하고 또한 그 일시(一時)도 동경(同經)을 뜻는이로 하여금 상항(常恒)의 지금임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여기 비구중(比丘衆)은 우리들을 대표(代表)하고 운집(雲集)하는 보살(菩薩)은 문법주관(聞法主觀)으로 이해(理解)하여야 옳을 것이다. 경전(經典) 영해(領解)의 근원(根源)은 말할 것도 없이 여시아문(如是我聞)의 문신(聞信)이다. 고(故)로 어떤 경전(經典)에 있어서도 그 일구(一句)는 중요(重要)한 것이다. 전불교(全佛敎)는 실(實)로 여시아문(如是我聞)에 의(依)해 전(傳)해지고 있는 것이다. 여시아문(如是我聞)의 아(我)는 그 자체(自體)가 무아(無我)임을 스스로 밝혀지고 있다. 그러므로 여시(如是)의 법(法)은 그대로 문자(聞者)의 것으로 되어 있음도 분명(分明)해진다. 여기에는 다만 설(說)하는 법(法)에 대(對)한 신(信)만이 있는 것으로 설자(說者)와 청자(聽者)의 대립(對立)은 없어지고 설자(說者)와 청자(聽者)는 일여(一如)로 되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석존(釋尊)께서 일심(一心)으로 법(法)을 설(說)하고 할 때에는 그 생애(生涯)의 체험(體驗)을 청자(聽者)의 심령(心靈)에 감득(感得)한 것일 것이다. 청자(聽者)도 또한 석존(釋尊)의 체험(體驗)으로서 법(法)을 듣는 것이다. 이상(以上)과 같은 내용(內容)이 법화경(法華經)의 인연(因緣)을 설(說)한 서품(序品)의 참모습

이다. 그런데 이와같은 법화경(法華經) 설법도장(說法道場)의 참모습을 도설화(圖說化)한 것이 영산회상불정(靈山會上佛幀)인 것이다. 이를 화엄도설(華嚴圖說)과 비교(比較)하면 화엄경(華嚴經)의 도리(道理)인 우주(宇宙)의 근본이치(根本理致)를 동화력(同化力)의 위에 표현(表現)한 것이 화엄불정(華嚴佛幀)이라면 전법륜(轉法輪)의 자비(慈悲)를 응화력(應化力)의 위에 표현(表現)한 것이 법화정(法花幀) 즉(卽) 영산회상도(靈山會上圖)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영산회상도(靈山會上圖)는 보다 많이 우리 중생(衆生)에게 친근감(親近感)을 갖게 하여 불보살단의식(佛菩薩壇儀式)인 상단근공(上壇勤供)하면 영산회상설법(靈山會上說法)의 응화력(應化力)에 호소(呼訴)하는 영산작법(靈山作法)이 대표적(代表的)인 것으로 행(行)해진다.<sup>15)</sup> 따라서 불보살단(佛菩薩壇)인 상단(上壇)에 봉안(奉安)되는 후불정화(後佛幀畫)도 영산회상도(靈山會上圖)가 중심(中心)이 되고 있다.

그러면 다음에는 이와 같은 영산회상도(靈山會上圖)가 또 어떤 다른 불정(佛幀)을 분화(分化)시키는 것일까 화엄정(華嚴幀)에서는 화엄성중(華嚴聖衆)이 분화(分化)되어 신중정화(神衆幀畫)로 발전(發展)되는 과정(過程)을 살려 보았다. 영산회상도(靈山會上圖)는 대체(大體)로 설주(說注)인 석가여래상(釋迦如來像)을 중심(中心)으로 보살상(菩薩像) 십대존자상천선녀상(十代尊子像天仙女像) 호법선신(護法善神)으로서의 사대천왕(四大天王)과 제신장(諸神將) 및 제석(帝釋) 범천(梵天) 등(等)으로 구성(構成) 되어진다.<sup>16)</sup> 여기 호법선신중(護法善神衆)이 신중정화(神衆幀畫)로 분화(分化)되는 과정(過程)도 살필 수 있겠으나 신중단(神衆壇)을 화엄성중(華嚴聖衆)이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sup>17)</sup> 이는 화엄경(華嚴經)에서 분화(分化)된 것으로 보는 것이 더욱 원초적인 형태(形態)로 추찰(推察)되어진다.

그런데 영산회상도(靈山會上圖)는 전기(前記) 법화경(法華經)의 특징(特徵)에서 살필 수 있듯이 동경(同經)의 공덕(功德)을 설(說)한 유통분(流通分)의 공덕(功德)에서 그 분화과정(分化過程)을 살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 대표적(代表的)인 예(例)로 관음전후 불화화(觀音殿後佛華畫)라 할 수 있는 관음정(觀音幀)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관음신앙(觀音信仰)은 법화경(法華經) 유통분(流通分)의 관음보문품(觀音普門品)에서 그 근거(根據)를 살필 수 있는 것이나 이같은 관음신앙(觀音信仰)은 특(特)히 많은 영험전(靈驗傳)을 낳고 그에 따른 신앙(信仰)이 오늘날에도 큰 비중(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외(以外) 여타(餘他)의 후불정화(後佛幀畫)도 대체적(大體的)으로 법화경(法華經)의 설법회상(說法會上)인 영산회상도(靈山會上圖)를 기본(基本)으로 하고 있음에 관심(關心)을 기우려야 한다. 이 점(點) 후장(後章)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하겠다.

#### 四. 幀畫의 分化와 그 展開(정화의 분화와 그 전개)

정화(幀畫)의 분화(分化)는 신앙형태(信仰形態)의 분화(分化)를 의미(意味)한다. 신앙(信仰)의 분화(分化)가 일차적(一次的)으로 상단(上壇)·중단(中壇)·하단신앙(下壇信仰)으로 분화(分化)되어 졌다고 함은 정화유형(幀畫類型)의 분류(分類)에서 이미 살핀바 있으나 여기서는 다시 이차적(二次的)인 분화현상(分化現象)을 살펴보기로 한다.

## (一) 상단신앙(上端信仰)과 그 정화(幀畫)의 분화(分化)

한국정화(韓國幀畫)의 기본(基本)은 화엄경(華嚴經)과 법화경(法華經)의 내용(內容)이 중심(中心)이 된다고 함은 전술(前述)한 바이나 이는 법화경(法華經)과 화엄경(華嚴經)이 우리 불교계(佛敎界)의 중심적인 위치(位置)를 차지한다는데도 기인(起因)하겠으나 그 위에 화엄경(華嚴經)은 불교(佛敎)의 근본도리(根本道理)를 법화경(法華經)은 그 근본도리(根本道理)의 전법론(轉法論)의 성격(性格)을 지닌다는데 관심(關心)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화엄정화(華嚴幀畫)보다 법화회상(法華會上)의 정화(幀畫)가 더 많은 비중(比重)을 차지함은 사원(寺院)이 갖는 전법(傳法)의 기능(機能)이 더욱 중시(重視)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하여 상단정화(上壇幀畫)를 생각할 때는 화엄정화(華嚴幀畫)를 제외(除外)하고는 일단 영산회상도(靈山會上圖)를 근거(根據)로 하여야만 되고 그리고 그 이후(以後)의 분화과정(分化過程)을 살펴야 된다고 하겠다. 이제 그 예(例)를 몇가지 들어 살펴보기로 하자.

### (1) 극락전(極樂殿) 후불정화(後佛幀畫)

극락전(極樂殿)은 아미타불(阿彌陀佛)을 주불(主佛)로 한 불전(佛殿)이다. 아미타불(阿彌陀佛)은 서방정토(西方淨土)의 주불(主佛)로 그 후불정화(後佛幀畫)도 서방(西方) 극락정토(極樂淨土)를 도설화(圖說化)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사실(事實)은 그렇지 않고 일반 대웅전(大雄殿)의 후불정화(後佛幀畫)와 같이 석존(釋尊) 영산설법회상도(靈山說法會上圖)와 같은 내용(內容)으로 되고 있음이 거의 통례(通例)이다. 그러나 이는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미타신앙(彌陀信仰)이 정토삼부경(淨土三部經)에 의(依)한 신앙(信仰)이란 것은 틀림없으나 이 경전(經典)의 설자(說者)가 석존(釋尊)이고 설처(說處) 및 청자(聽者)가 법화경(法華經)과 거의 같은 비구(比丘) 보살(菩薩) 십대제자(十大弟子)로 되어 있는 전법륜상(轉法輪相)을 지니기 때문이다.<sup>18)</sup> 그러면 서방정토(西方淨土)를 도설화(圖說化)한 정화(幀畫)는 없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구품극락정화(九品極樂幀畫) 극락영접도(極樂迎接圖) 등이 그 대표적(代表的)인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들 정화(幀畫)는 상단정화(上壇幀畫)로서 보다는 오히려 영가천도(靈駕薦度)를 위한 상단정화(上壇幀畫)로서 더 많이 봉안(奉安)되고 있음에 주의력(注意力)을 기울여야 한다. 이 점(點) 다시 하단정화(下壇幀畫)에서 후술(後述)하기로 하겠다.

### (2) 약사전(藥師殿) 후불정화(後佛幀畫)

약사전(藥師殿) 후불정화(後佛幀畫)는 약사정토(藥師淨土)의 특성(特性)을 그대로 도설화(圖說化)하고 있다. 약사신앙(藥師信仰)은 달마급다역(達磨笈多譯)의 불설약사여래본원경(佛說藥師如來本願經)에 의(依)한 신앙(信仰)이겠으나 그에 의(依)하면 약사정토(藥師淨土)의 이보살(二菩薩)로서 일광월광보살(日光月光菩薩)이 제보살중(諸菩薩衆)의 상수(上首)로 되어 있고 호법신장(護法神將)으로 십이신장(十二神將)을 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약사전(藥師殿) 후불정화(後佛幀畫)는 약사여래(藥師如來)의 우우보처(右右補處)로 일광월광보살(日光月光菩薩) 그리고 호법신(護法神)으로는 약사정토(藥師淨土)의 호법신(護法神)인 십이신장(十二神將)이 아닌 사천왕(四天王) 등(等)의 석가정토(釋迦淨土)의 호법신(護法神)으로 구성(構成)되어 있음이 통례(通例)이다.(통도사(通度寺) 약사전(藥師殿)의 경우에는 사천왕(寺天王)과 십이신장(十二神將)을 동시(同時)에 그려 놓고 있어 조금 이상(異常)한 느낌이 있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약사신앙(藥師信仰)은 관음신앙(觀音信仰)에서 볼 수 있는 법화경

(法華經) 유통분(流通分)의 공덕(功德)에 강조점(強調點)을 둠으로서 관음(觀音)의 성격(性格)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그 신앙(信仰)에 의(依)한 관음정화(觀音幀畫)의 분화과정(分化過程)을 살필 수 있는 것과 대비(對比)해 생각할 수 있는 성질(性質)의 것이 아닌가 한다.

### (3) 삼여래봉안대응전(三如來奉安大雄殿) 후불정화(後佛幀畫)

삼여래(三如來)는 법신불(法身佛) 보신불(報身佛) 화신불(化身佛)로 할 경우와 석가(釋迦) 미타(彌陀) 약사(藥師)의 경우가 있다. 이중 후자(後者)의 경우를 들어 후불정화(後佛幀畫)의 도설(圖說)을 보면<sup>19)</sup> 단신불대응전(單身佛大雄殿)의 후불정화(後佛幀畫)인 영산회상도(靈山會上圖)를 바탕으로 하고 미타상(彌陀像)과 그 좌우(左右)에 관음(觀音) 세지(勢至) 그리고 약사상(藥師像)과 그 좌우(左右)에 일광월광보살상(日光月光菩薩像)을 보처(補處)로 배치(配置)하여 삼여래후불정화(三如來後佛幀畫)의 면모를 갖추게 하고 있다.

## (二) 중단신앙(中壇信仰)과 그 정화(幀畫)의 분화(分化)

### (1) 중단정화(中壇幀畫)

중단정화(中壇幀畫)는 신중정화(神衆幀畫)를 말하는 것으로 이같은 신중(神衆)은 원래(元來) 상단정화(上壇幀畫)에 있어 호법선신(護法善神)으로서 상단정화도설(上壇幀畫圖說)의 한 요소(要素)인 것이나 신중자체(神衆自體)의 기능(機能)이 더욱 강화(強化)되어 독립(獨立)된 신앙(信仰)과 정화(幀畫)를 갖게 된다.

신중정화(神衆幀畫)가 화엄정화(華嚴幀畫)에서 분화(分化)되어졌다고 함은 전술(前述)한 바이나 이를 의궤(儀軌)에서 살펴보면 신중단에경의식(神衆壇禮敬儀式)에서<sup>20)</sup>

志心歸命禮 華嚴會上 欲色諸天衆  
지심귀명례 화엄회상 욕색제천중

志心歸命禮 華嚴會上 八部四王衆  
지심귀명례 화엄회상 팔부사왕중

志心歸命禮 華嚴會上 護法善神衆  
지심귀명례 화엄회상 호법선신중

이라 한데서 더욱 확실시(確實視)되어 진다. 그러면 이와 같은 신중정화(神衆幀畫)는 어떤 내용(內容)의 것인가를 다음에서 살펴 보기로 한다.

신중정화(神衆幀畫)는 최고(最高) 백사위(百四位)(해인사(海印寺) 범어사신중정화(梵魚寺神衆幀畫)) 다음 삼십구위(三十九位) 그리고 그 이외(以外)는 백사위중(百四位中) 적당한 위목(位目)으로 안배하여 신중정화(神衆幀畫)를 구성(構成)한다. 그런데 이같은 신중정화(神衆幀畫)는 몇 위(位)로 구성(構成)되든지 상중하단(上中下壇)의 분단법(分壇法)에 의(依)해 이룩되고 상단(上壇)과 중단(中壇)은 두광(頭光)을 그려 놓고 있음에서 쉽게 구별(區別)되어 진다. 이를 의궤내용(儀軌內容)에서 신중(神衆) 각각(各各)의 위목(位目)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21)</sup>

① 百四位神衆

백사위신중

上壇位目

상단위목

奉請如來化現圓滿神通大穢跡金剛 聖者  
봉청여래화현원만신통대예적금강 성자

奉請消滅衆生宿災舊殃靑除災 金剛  
봉청소멸중생숙재구앙청제재 금강

奉請破除有情瘟瘧諸毒碧毒 金剛  
봉청파제유정온수제독벽독 금강

奉請主諸功德所求如意黃隨求 金剛  
봉청주제공덕소구여의황수구 금강

奉請主諸寶藏破除熱惱白淨水 金剛  
봉청주제보장파제열뇌백정수 금강

奉請見佛身光如風速疾赤夢火 金剛  
봉청견불신광여풍속질적몽화 금강

奉請慈眼示物智破災境定除災 金剛  
봉청자안시물지파재경정제재 금강

奉請披堅牢藏開悟衆生紫賢神 金剛  
봉청피견뢰장개오중생자현신 금강

奉請應物調生智芽成就大神力 金剛  
봉청응물조생지아성취대신력 금강

奉請爲於衆會力便警物眷 菩薩  
봉청위어중회력편경물권 보살

奉請智達定境福修定業索 菩薩  
봉청지달정경복수정업삭 보살

奉請隨諸衆生現神調伏爲 菩薩  
봉청수제중생현신조복위 보살



奉請清淨雲音普警羣迷語 菩薩  
봉청청정운음보경군미어 보살

奉請東方焰曼怛迦大 明王  
봉청동방염만달가대 명왕

奉請南方鉢羅掘也怛迦大 明王  
봉청남방발라니야달가대 명왕

奉請西方鉢納摩怛迦大 明王  
봉청서방발납마달가대 명왕

奉請北方尾佉羅怛迦大 明王  
봉청북방미홀라달가대 명왕

奉請東南方托枳羅惹大 明王  
봉청동남방탁지라야대 명왕

奉請西南方尼羅能拏大 明王  
봉청서남방니라능나대 명왕

奉請西北方摩訶薩羅大 明王  
봉청서북방마가살라대 명왕

奉請東北方阿左羅曩他大 明王  
봉청동북방아좌라낭타대 명왕

奉請下方縛羅播多羅大 明王  
봉청하방박라파다라대 명왕

奉請上方鳩尼灑作佉羅縛皇帝大 明王  
봉청상방오이쇄작홀라박황제대 명왕

中壇位目  
중단위목

奉請娑婆界主號令獨尊大梵 天王  
봉청사파계주호영독존대범 천왕

奉請三十三天地居世帝釋 天王

봉청삼십삼천지거세제석 천왕

奉請北方護世大藥區主毘沙門 天王  
봉청북방호세대약구주곤사문 천왕

奉請東方護世乾闥婆主持國 天王  
봉청동방호세건달파주지국 천왕

奉請南方護世鳩般荼主增長 天王  
봉청남방호세구반다주증장 천왕

奉請西方護世爲大龍主廣目 天王  
봉청서방호세위대용주광목 천왕

奉請白明利生千光破晴日宮 天子  
봉청백명리생천광파청일궁 천자

奉請星主宿王清涼照夜月宮 天子  
봉청성주숙왕청량조야월궁 천자

奉請親伏摩窻誓爲力士金剛 密跡  
봉청친복마원서위력사금강 밀적

奉請色界頂居尊特之主摩醯首羅 天王  
봉청색계정거존특지주마혜수라 천왕

奉請二十八部摠領鬼神散脂 大將  
봉청이십팔부총령귀신산지 대장

奉請能興摠持大智慧聚大辯才 天王  
봉청능흥총지대지혜취대변재 천왕

奉請隨其所求令得成就大功德 天王  
봉청수기소구령득성취대공덕 천왕

奉請殷憂回部外護三州韋馱 天神  
봉청은우회부외호삼주위태 천신

奉請增長出生發明功德堅牢 地神  
봉청증장출생발명공덕견뢰 지신

奉請覺揚垂蔭因果互嚴菩提 樹神  
봉청각양수음인과호엄보제 수신

奉請生諸鬼王保護男女鬼子母 神  
봉청생제귀왕보호남녀귀자모 신

奉請行日月前救兵戈難摩利支 神  
봉청행일월전구병과난마리지 신

奉請秘藏法寶王執群龍娑竭羅 龍王  
봉청비장법보왕집군용사갈라 용왕

奉請掌幽陰權爲地獄主閻摩羅 王  
봉청장유음권위지옥주염마라 왕

奉請衆星環拱北極眞君紫微 大部  
봉청중성환공북극진군자미 대부

奉請北斗第一陽明貪狼太 星君  
봉청북두제일양명탐한대 성군

奉請北斗第二陰精巨門元 星君  
봉청북두제이음정거문원 성군

奉請北斗第三眞人祿有眞 星君  
봉청북두제삼진인록유진 성군

奉請北斗第四玄冥文曲紐 星君  
봉청북두제사현명문곡유 성군

奉請北斗第五丹元廉貞綱 星君  
봉청북두제오단원렴정강 성군

奉請北斗第六北極武曲紀 星君  
봉청북두제육북극무곡기 성군

奉請北斗第七天關破軍關 星君  
봉청북두제칠천관파군관 성군

奉請北斗第八洞明外輔 星君  
봉청북두제팔동명외보 성군

奉請北斗第九隱光內弼 星君  
봉청북두제구은광내필 성군

奉請上台處精開德 眞君  
봉청상태처정개덕 진군

奉請中台六淳司空 星君  
봉청중태육순사공 성군

奉請下台曲生司祿 星君  
봉청하태곡생사록 성군

奉請二十八宿周天列曜大 星君  
봉청이십팔숙주천열요대 성군

奉請以能將手隱攝日月阿修羅 王  
봉청이능장수은섭일월아수라 왕

奉請清淨速疾普慧光明迦樓羅 王  
봉청청정속질보혜광명가루라 왕

奉請悅意吼聲攝伏衆摩緊那羅 王  
봉청열의후성섭복중마긴나라 왕

奉請勝慧莊嚴須彌堅固摩睺羅伽 王  
봉청승혜장엄수미견고마후라가 왕

下壇位目  
하단위목

奉請二十五位萬事吉祥護戒 大神  
봉청이십오위만사길상호계 대신

奉請一十八位內護區法福德 大神  
봉청일십팔위내호구법복덕 대신

奉請此一住處普德浮華土地 神  
봉청차일주처보덕부화토지 신

奉請莊嚴道場守護萬行道場 神  
봉청장엄도장수호만행도장 신

奉請守護攝持一切苾芻伽藍 神  
봉청수호섭지일체필도가람 신

奉請普覆法界周遍含容屋宅 神  
봉청보복법계주편함용옥택 신

奉請廣大靈通出入無碍門戶 神  
봉청광대영통출입무애문호 신

奉請積集無邊清淨福業主庭 神  
봉청적집무변청정복업주정 신

奉請檢察人事分明善惡主竈 王  
봉청검찰인사분명선악주조 왕

奉請萬德高勝性皆閑寂主山 神  
봉청만덕고승성개한적주산 신

奉請離塵濯熱普生歡喜主井 神  
봉청이진탁열보생환희주정 신

奉請誓除不淨保潔衆生園廁 神  
봉청서제부정보결중생원축 신

奉請成就妙梗轉無已碓磑 神  
봉청성취묘갱전무기대에 신

奉請雲雨等潤發生萬物主水 神  
봉청운우등윤발생만물주수 신

奉請衆妙宮殿光明破晴主火 神  
봉청중묘궁전광명파청주화 신

奉請堅利日在密焰勝日主金 神  
봉청견리목재밀염승일주금 신

奉請擢幹舒光生芽發耀主木 神  
봉청탁간서광생아발요주목 신

奉請生成住持心萬地德主土 神

봉청생성주지심만지덕주토 신

奉請普觀世業永斷迷惑主方 神  
봉청보관세업영단미혹주방 신

奉請拯苦齊厄十二類生土公 神  
봉청중고제액십이류생토공 신

奉請運行四洲紀陳寒暑年直方位 神  
봉청운행사주기진한서년직방위 신

奉請破晴臟物能冷能熱日月時直 神  
봉청파청장물능냉능열일월시직 신

奉請廣興供養值無量佛廣野 神  
봉청광흥공양치무량불광야 신

奉請遠離塵垢具舍萬德主海 神  
봉청원리진구구함만덕주해 신

奉請法河流注潤益群品主河 神  
봉청법하류주윤익군품주하 신

奉請普興雲幢離□番積主江 神  
봉청보흥운당리□번적주강 신

奉請威光特達分置列塚道路 神  
봉청위광특달분치열후도로 신

奉請嚴淨如來所居宮殿主城 神  
봉청엄정여래소거궁전주성 신

奉請布花如雲妙光迴曜草卉 神  
봉청포화여운묘광형요초훼 신

奉請成就妙香增長淨氣主稼 神  
봉청성취묘향증장정기주가 신

奉請飄擡雲幢所行無碍主風 神  
봉청표대운당소행무애주풍 신

奉請隨諸業報施利多般主雨 神  
봉청수제업보시리다반주우 신

奉請於晝攝化行德恒明主晝 神  
봉청어주섭화행덕항명주주 신

奉請導引慧明令知知路主夜 神  
봉청도인혜명령지지로주야 신

奉請無量威儀最上莊嚴身衆 神  
봉청무량위의최상장엄신중 신

奉請親近如來隨逐不捨足行 神  
봉청친근여래수축불사족행 신

奉請掌判壽夭可命 神  
봉청장판수요가명 신

奉請密定資糧可祿 神  
봉청밀정자량가록 신

奉請左從注童掌善 神  
봉청좌종주동장선 신

奉請右逐注童掌惡 神  
봉청우축주동장악 신

奉請行罰行病二位 大神  
봉청행벌행병이위 대신

奉請瘡痼痼瘵二位 大神  
봉청황고고채이위 대신

奉請二儀三才五行 大神  
봉청이의삼재오행 대신

奉請陰陽造化不知名位一切護神靈祇等衆  
봉청음양조화부지명위일체호신영지등중

이상(以上)은 백사위(百四位) 신중위목(神衆位目)이나 이를 삼십위(三十位)로 합 경우에는 백사위(百四位)의 상단(上壇)은 모두 제외(除外)되고 상단(上壇)에는 백사위(百四

位) 신중위목(神衆位目) 중단(中壇)의 천왕위목(天王位目) 십이위(十二位) 중단(中壇)은 백사위중단위(百四位中壇位)의 팔부중(八部衆) 팔위하단(八位下壇)은 백사위(百四位) 하단위목중(下壇位目中) 십구위(十九位)의 신중(神衆)으로 구성(構成)한다. 그리고 기이외(其以外)의 신중정(神衆楨)은 전기(前記) 백사위중(百四位中) 제신중(諸神衆)을 적당히 안배하는 형식(形式)을 취(取)하되 상(上) 중(中) 하단(下壇)의 구조(構造)를 지니게 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있다.<sup>22)</sup>

그런데 이와같은 신중(神衆)에 대(對)한 신앙(信仰)은 상단(上壇)에서는 호법신(護法神)으로서의 외호신(外護神)에 지나지 않으나 호법(護法) 옹호(擁護)란 기능(機能)이 더욱 강조(強調)되어 그 기능(機能)이 곧 강복소재(降福消災)한다는 신앙(信仰)으로 발전(發展)한다.<sup>23)</sup> 이렇게 볼 때 신중정화(神衆楨畫)는 소재상도(消災上圖)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화엄(華嚴)의 도리(道理)에서 생각하면 석존(釋尊)의 정각(正覺)을 이룬 것은 곧 만물만상(萬物萬象)이 정각(正覺)을 이룬 것이 되므로 우주(宇宙)의 모든 신(神)은 모두 호법신(護法神)으로 포함되어진다.<sup>24)</sup> 여기 제신(諸神)은 석존(釋尊)당시의 인도토속신(印度土俗神) 뿐 아니라 그 이후(以後) 불교(佛敎)가 전파(傳播)되는 지역(地域)에 따른 각기(各己) 그 지역(地域) 혹(或)은 그 시대(時代)의 모든 신(神)들이 신중(神衆)으로 포함되어지는 것이다. 그리하여 오늘날 백사위(百四位)로 구성(構成)된 신중위목(神衆位目)을 보면 인도(印度) 중국(中國) 한국(韓國)의 토속신(土俗神)이 모두 포함되고 있음을 살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즉(卽) 대체(大體)로 백사위(百四位) 위목중(位目中) 상단(上壇)과 중단(中壇)의 일부(一部) 하단(下壇)의 일부(一部)에 인도토속신(印度土俗神)이 있고 중단(中壇)의 북두칠성(北斗七星) 등(等)은 중국(中國)에서 첨가된 것이라 할 수 있다면 하단신중(下壇神衆)은 한국적(韓國的)인 것이 대부분(大部分)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이와같은 백사위중(百四位中) 어떤 신중(神衆)을 중심(中心)으로 신중정화(神衆楨畫)를 구성(構成)하느냐 하는 것은 시대(時代)에 따라 혹(或)은 지역(地域)에 따라 그 신앙(信仰)의 추이(推移)를 살릴 수 있는 것 같아 무척 흥미(興味)를 끌게 한다.

한편 더욱 주목(注目)을 끄는 것은 어떤 신중(神衆)을 중심(中心)으로 신중정화(神衆楨畫)를 구성(構成)하느냐 하는 문제(問題)가 일보(一步) 진전(進前)하여 신중각자(神衆各自)가 지닌 원래적(元來的)인 신(神)의 독립적(獨立的)인 기능(機能)을 더욱 중시(重視)하게 되어 신중정화(神衆楨畫)의 이차적(二次的)인 분화(分化)를 가져 오게 된다는 것이다. 즉(卽) 예(例)를 들면 칠성정화(七星楨畫) 제석정화(帝釋楨畫) 산신정화(山神楨畫) 조왕정화(竈王楨畫) 십왕정화(十王楨畫) 등(等)이 그것이다.

## (2) 칠성정화(七星楨畫)

칠성(七星)은 백사위(百四位) 신중정화(神衆楨畫)에서 보면 상(上)·중(中) 하단신중(下壇神衆) 중(中) 중단신중(中壇神衆)으로 여지(餘地)의 신중(神衆)과 같이 불법수호(佛法守護)에 참여(參與)하는 신중(神衆)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칠성(七星)이 독립(獨立)하여 대중(大衆)의 신앙대상(信仰對象)이 되면서 신중정화(神衆楨畫)에서 칠성정화(七星楨畫)가 분화(分化)되어 진다. 그러면 칠성(七星)은 어찌하여 대중적(大衆的)인 신앙(信仰)을 갖게되는 것일까 그 신앙(信仰)의 일단(一端)을 칠성단의식(七星壇儀式)의 청사(請詞)에서 보면<sup>25)</sup>



南無一心奉請 北斗第一 子孫萬德 貪狼星君 北斗第二 障難遠離 巨門星君 北斗第三 業障遣

남무일심봉청 북두제일 자손만덕 탐랑성군 북두제이 장난원리 거묘성군 북두제삼 업장소

災 祿存星君 北斗第四 所求背得 文曲星君 北斗第五 百障殄滅 廉貞星君 北斗第六 福德具足

재 록재성군 북두제사 소구배득 문곡성군 북두제오 백장진멸 염정성군 북두제육 북덕구족

武曲星君 北斗第七 壽命長遠 破軍星君 左補弼星 右補弼星 三台六星 二十八宿 周天列曜 諸

무곡성군 북두제칠 수명장원 파군성차 좌보필성 우보필성 삼태육성 이십팔숙 주천열조 제

星君衆

성군중

이라 한데서 그 신앙(信仰)의 내용(內容)을 살필 수 있는 데 이는 도교(道敎)의 칠성신앙(七星信仰)이 불교화(佛敎化)하여<sup>26)</sup> 북두칠성염송의례등(北斗七星念誦儀軌等)의 불교경전(佛敎經典)을 성립(成立)시키고<sup>27)</sup> 그에 따라 도교(道敎)의 칠성(七星)을 불교(佛敎)의 칠여래(七如來)로 신앙(信仰)하고 있음을 칠성신앙의례(七星信仰儀軌)나 칠성정화(七星幀畫)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 칠성정화(七星幀畫)의 도설내용(圖說內容)을 보면 중앙주불(中央主佛)에 치성광여래(熾盛光如來) 그 좌우보처(左右補處)에 일광(日光) 월광보살(月光菩薩) 그리고 칠성(七星)의 불교화(佛敎化)임을 나타내는 칠여래(七如來)와 칠원성군(七元星君) 그 이외(以外) 삼태육성(三台六星) 이십팔숙(二十八宿) 등(等)으로 되어 있다. 이를 도교(道敎)와 불교화(佛敎化)의 관계(關係)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sup>28)</sup>

- ① 北極星(북극성)……金輪寶界 熾盛光如來佛(금륜보계 치성광여래불)
- ② 日(일)~日光遍照菩薩(左補處)(일광편조보살(좌보처))
- ③ 月(월)~月光遍照菩薩(右補處)(월광편조보살(우보처))
- ④ 貪狼星君(탐랑성군)~東方最勝世界 運意通證如來佛(동방최승세계 운의통증여래불)
- ⑤ 巨門星君(거문성군)~東方妙寶世界 光音自右如來佛(동방묘보세계 광음자우여래불)
- ⑥ 祿存星君(록존성군)~東方圓滿世界 最勝吉祥如來佛(동방원만세계 최승길상여래불)
- ⑦ 廉貞星君(염정성군)~東方淨住世界 廣達智辯如來佛(동방정주세계 광달지변여래불)
- ⑧ 武曲星君(무곡성군)~東方法意世界 法海遊戲如來佛(동방법의세계 법해유희여래불)
- ⑨ 破車星君(파거성군)~東方琉璃世界 藥師琉璃光如來佛(동방류리세계 약사류리광여래불)

여기서 보면 북극성(北極星) 칠성(七星)·일월(日月)을 불교(佛敎)의 불보살(佛菩薩)의 지혜덕상(智慧德相)의 현현(顯現)으로 신앙(信仰)한데서 비롯된것임을 추찰(推察)할

수 있게 된다.

### (3) 제석정화(帝釋幀畫)

제석천왕(帝釋天王)도 신중정화(神衆幀畫)에서 분화(分化)되어진 것인데 즉(卽) 제석(帝釋)은 신중정화(神衆幀畫)에서 보면 신중정화중단(神衆幀畫中壇)의 삼십삼천지거세주제석천왕(三十三天地居世主帝釋天王)의 위목(位目)에 해당되는데 제석신앙(帝釋神仰)이 독립(獨立)되어 제석정화(帝釋幀畫)를 구성(構成)한다.

제석천(帝釋天)은 인도(印度)의 상속신앙(上俗信仰)이나 고래(古來)의 우리 민족(民族)의 제천신앙(祭天信仰)과 습합(習合)되어 있었음을 삼국유사(三國遺事) 고조선조(古朝鮮條)에서 살필 수 있고 한편 법화경제일경후(法華經第一經後) 서품음석(序品音釋)에 석제환인(釋帝桓因) 차운능천주즉도리천주(此云能天主卽忉利天主) 옥황상제역칭제석(玉皇上帝亦稱帝釋)이라 한데서도 제석(帝釋)과 천신신앙(天神信仰)과의 습합(習合)된 현상(現象)임을 살필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이와같은 제석신앙(帝釋神仰)이 어떤 연유로 신중신앙(神衆信仰)에서 독립(獨立)된 신앙(信仰)의 형태(形態)로 분리(分離)되는 것일까 이는 두말할 것도 없이 고래(古來)의 제천신앙(祭天信仰)에서 그 근원(根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고래(古來)의 농업국(農業國)으로 풍년(豐年)을 기원(祈願)하는 제천의식(祭天儀式)을 끊임없이 행(行)하여 왔다. 이와같은 제천의식(祭天儀式)은 불교전래(佛敎傳來) 이후(以後)에도 떠날 수 없었던 일반대중신앙(一般大衆信仰)이었음은 물론(勿論) 왕실(王室)의 중요행사(重要行事)가 되지 않을 수 없었던 사실(事實)을 우리의 역사(歷史)는 역력(歷歷)히 증명(證明)해 주고 있는 것이다.<sup>29)</sup> 여기서 호법신(護法神)으로서의 신중신앙(神衆信仰)에서 제석신앙(帝釋神仰)이 독립신앙(獨立信仰)으로 분리(分離)되는 과정(過程)을 우리는 살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제석정화(帝釋幀畫)의 도설내용(圖說內容)을 살펴 보기로 하자. 대체(大體)로 신중정화(神衆幀畫)에서 독립(獨立)된 신앙(信仰)의 형태(形態)가 강조(強調)되어 새로운 정화(幀畫)를 구성(構成)하기에 이르르면 중심신(中心神)을 바탕으로 하여 그 권속(眷屬)을 모두 도설화(圖說化)하는 현상(現象)으로 나타난다. 이를 그 의궤(儀軌)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남무도리천주제석천왕(南無忉利天主帝釋天王)

남무좌부처 파수요나천자(南無左補處 波數囊那天子)

남무우보처 이사나천자(南無右補處 伊舍那天子) 그리고

사방각유팔위천자(四方各有八位天子)(삼십이위(三十二位)) 등(等)으로 구성(構成)되어 진다.

### (4) 산신정화(山神幀畫)

산신신앙(山神信仰)은 오래전부터 전해오는 우리 민족(民族)의 토속신앙(土俗信仰)이다. 그러나 불교전래이후(佛敎傳來以後) 불교(佛敎)에서는 이들 산신(山神)을 호법선신(護法善神)으로 포용(包容)하였으니 이가 신중정화(神衆幀畫) 하단위목(下壇位目)의 “봉청만덕고승성개한적주산신(奉請萬德高勝性皆閑寂主山神)” 위목(位目)이다. 그런데 호법선신(護法善神)으로서의 산신(山神)이 불교화(佛敎化)한 모습으로 다시 독립(獨立)된 신앙(信仰)을 갖게 되어 사원내(寺院內)에 산신각(山神閣)을 짓고 산신정화(山神幀畫)를 봉안(奉安)한다. 이에 이들 신앙형태(信仰形態)를 의궤내용(儀軌內容)에서 찾아보면.

南無萬德高勝 性皆閑寂 山王大神  
남무만덕고승 성개한적 산왕대신

南無北山局內 恒住大聖 山王大神  
남무북산국내 항주대성 선왕대신

南無十方法界 至靈至聖 山王大神  
남무십방법계 지영지성 산왕대신

由致請詞  
유치청사

切以 山王大聖者 最神最靈 能威能猛 能猛之處 摧妖降魔 最靈之時 消災降福 有求皆……  
절이 산왕대성자 최신최령 능위능맹 능맹지처 최요강마 최영지시 소재강복 유구개……  
금월 金日 · 虔說法度 淨饌供養 山王大神 並從眷屬 □回靈鑑 曲照微誠 仰表一逐 無願不從榮  
월 金日 · 건설법건 정찬공의 산왕대신 병종권속 □회영감 곡조미성 양표일심 무원불중영  
以心先陳三請 南無一心奉請 後土聖母 王岳帝君 職典崑峨 八大山王 禁忌王蘊 安濟夫益聖保  
이심선진삼청 남무일심봉청 후토성모 왕악제군 직전외아 팔대산왕 금기왕은 안제부의성보  
德眞君 十方世界至靈至聖 諸大山王 並從眷屬 唯願承三寶力 降臨道場 受此供養  
덕진군 십방세계지령지성 제대산왕 병종권속 유원승삼보력 강림도장 수차공의

산신정화(山神幀畫)의 도설내용(圖說內容)은 산신(山神)의 인격신(人格神)과 그 화신(化身)인 호랑이를 그린다. 산신(山神)의 화신(化身)으로서 호랑이를 끌어들이는 일은 재래(在來)의 민간신앙(民間信仰)이나 설화(說話)에서 많이 찾아 볼 수 있는 일로<sup>30)</sup> 이같은 발상법을 불교(佛敎)에서 포용(包容)하고 있는 것이다.

#### (5) 조왕정화(竈王幀畫)

조왕신앙(竈王信仰)도 우리나라 재래(在來)의 민간신앙(民間信仰)이다.<sup>31)</sup> 그러나 이와 같은 민간신앙(民間信仰)이 불교(佛敎)에서는 하나도 배척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를 포용(包容)하고 정화(淨化)해 나가는 방법(方法)을 택(擇)한다. 그 일차적(一次的)인 방법(方法)이 호법선신중(護法善神衆)으로서의 포용(包容)이다. 그리하여 조왕신(竈王神)은 신중정화(神衆幀畫) 하단위목(下壇位目)인 봉청검찰인사분명선악(奉請檢察人事分明善惡) 주조왕신(主竈王神)의 위목(位目)에 참여(參與)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신중(神衆)으로서의 조왕(竈王)은 다시 불교적(佛敎的)으로 정화(淨化)되어 분가(分家)되지 않을 수 없는 강(強)한 성격(性格)때문에 조왕단(竈王壇)과 그에 봉안(奉安)되는 조왕정화(竈王幀畫)의 성립(成立)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 도설내용(圖說內容)을 의궤(儀軌)에서 살펴보면

남무팔만사천조왕대신 · 남무좌신처담시력사 · 남무우신처조식취모  
南無八萬四千竈王大神 · 南無左神處擔柴力士 · 南無右神處造食炊母

이와 그 신앙내용(信仰內容)을 유치청사(由致請詞)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切以 主帝竈戶 靈祇者 聖德崑崙 神功浩浩 一現之威相 妖魔自摧 一現之慈容 人世敬仰 有求  
절이 주제조호 형지자 성덕외외 신공호호 일현지위상 요귀자죄 일현지자용 인세경앙 유구

皆逐 無願不從 是以是以 今月今日 虔說淨饌敬獻聖前 降赴香壇 滿慰壇那之願 來臨寶座 克  
개축 무원부종 시이시이 금월금일 건설정찬경헌성전 강부향단 만위단나지원 내임보좌 극

副利濟之心 前伸讚語 次展請詞 謨秉一心先陳三請 南無一心奉請 擁護靈祇 主宰竈戶 分明善  
부리제지심 전신찬어 차전청사 모병일심선진삼청 남무일심봉청 옹호영지 주제조호 분명선

惡 自在出納 佛法門中 不離守護 八萬四千 山王大神 並從眷屬 唯願承 三寶力 降臨道場 受  
악 자재출납 불법문중 불리수호 팔만사천 산왕대신 병종권속 유원승 삼보력 강림도장 수

此供養  
차공의

등에서 살필 수 있다.

#### (6) 십왕정화(十王幀畫)

십왕정화(十王幀畫)는 백사위(百四位) 신중정화(神衆幀畫)의 중단위목(中壇位目) 봉청  
장유음권위지옥주염마라왕(奉請掌幽陰權爲地獄主閻摩羅王)에서 분화(分化)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염마라왕신앙(閻摩羅王信仰)은 인도(印度)의 신앙(信仰)이나<sup>32)</sup> 일찍이 불교(佛  
敎)의 신중신앙(神衆信仰)에 포용(包容)되고 이같은 호법선신(護法善神)으로서의 염마왕  
신앙(閻魔王信仰)이 다시 중국(中國)의 십왕신앙(十王信仰)과 결부되어 독립(獨立)된 신  
앙형태(信仰形態)를 형성(形成)하고 십왕정화(十王幀畫)를 성립(成立)시킨다. 다음에 십  
왕정화(十王幀畫)의 도설내용(圖說內容)을 보면<sup>33)</sup> 상단(上段)과 하단구조(下段構造)를  
지니는 데 상단(上段)은 업경대(業鏡臺)에 비추어진 죄과(罪科)에 따라 담당 명왕(冥王)  
과 판관(判官)이 권속(眷屬)을 거느리고 심판(審判)하는 광경(光景)을 그리고 하단(下  
段)에서는 죄과(罪科)에 따른 해당 지옥(地獄)이 옥왕(獄王)과 그 권속(眷屬)에 의(依)해  
지배(支配)되는 지옥상(地獄相)과 그 지옥(地獄)에 있어 지옥중생(地獄衆生)을 구제(救  
濟)하겠다는 지장보살(地藏菩薩)의 서원상(誓願相)이 그려져 있다. 도설(圖說)을 구성  
(構成)하는 제상(諸像)을 보면 명부십왕중(冥府十王衆) 십팔옥왕중(十八獄王衆) 이십사  
위판관중(二十四位判官衆) 삼십육위귀왕중(三十六位鬼王衆) 삼원장군(三元將軍) 이부동  
자(二府童子) 제위사자(諸位使者) 우두마면(牛頭馬面) 줄리아방등(卒吏阿旁等)의 명부장  
(冥府掌)과 지옥중생(地獄衆生) 및 그들을 구제(救濟)할 것을 서원(誓願)한 지옥보살(地  
獄菩薩)과 그 보처(補處)인 도명존자(道明尊者)와 무독귀왕(無毒鬼王)(삼십육위귀왕중  
(三十六位鬼王中)의 일(一)) 등(等)인데 이와같은 제상(諸像)은 십왕(十王) 각왕(各王)에  
분속(分屬)되어 십왕각정(十王各幀)을 이룬다. 이를 아래에서 소개(紹介)하면

○ 제일봉관대왕의 권속(第一奉官大王의 眷屬)

① 판관~태산류판관 태산주판관 도구송판관

(判官~泰山柳判官 泰山周判官 都句宋判官 )

② 귀왕~나리실귀왕 악독귀, 왕부석귀왕 대쟁귀왕

- (鬼王~那利失鬼王 惡毒鬼, 王負石鬼王 大諍鬼王)
- ③ 이부동자~주선동자, 주악동자(二府童子~注善童子, 注惡童子)
- ④ 제위사자~연직사자, 월직사자 일직사자, 시직사자 감제사자 직부사자  
(諸位使者~年直使者, 月直使者 日直使者, 時直使者 監齋使者 直符使者)
- 제이초강대왕의 권속(第二初江大王의 眷屬)
- ① 판관~태산왕판관 태산송판관 도추로판관 태산양판관  
(判官~泰山王判官 泰山宋判官 都推盧判官 泰山楊判官)
- ② 장군~상원주장군(將軍~上元周將軍)
- ③ 귀왕~나리실귀왕 삼목귀왕, 혈호귀왕 다악귀왕  
(鬼王~那利失鬼王 三目鬼王, 血虎鬼王 多惡鬼王)
- ④ 이부동자~주선동자 주악동자(二府童子~主善童子 主惡童子)
- ⑤ 제위사자~연직사자, 월직사자 일직사자, 시직사자 감제사자 직부사자  
(諸位使者~年直使者, 月直使者 日直使者, 時直使者 監齋使者 直符使者)
- 제삼송제대왕의 권속(第三宋帝大王의 眷屬)
- ① 판관~태산하판관 사명판관 사록판관 태산서판관 태산류판관  
(判官~泰山河判官 司命判官 司錄判官 泰山舒判官 泰山柳判官)
- ② 삼원장군~하원당장군(三元將軍~下元唐將軍)
- ③ 귀왕~백호귀왕 적호귀왕 나리실귀왕(鬼王~白虎鬼王 赤虎鬼王 那利失鬼王)
- ④ 이부동자~주선동자 주악동자(二府童子~注善童子 注惡童子)
- ⑤ 제위사자~상동(諸位使者~上同)
- 제사오관대왕의 권속(第四五官大王의 眷屬)
- ① 판관~태산숙판관 태산승판관 제사검부판관 사조배판관  
(判官~泰山肅判官 泰山勝判官 諸司檢符判官 司曹裊判官)
- ② 귀왕~비신귀왕 나리차귀왕 전광귀왕(鬼王~飛身鬼王 那利叉鬼王 電光鬼王)
- ③ 이부동자~상동(二府童子~上同)
- ④ 제위사자~상동(諸位使者~上同)
- 제오염라대왕의 권속(第五閻羅大王의 眷屬)
- ① 판관~태산홍판관 주사풍판관 도사조판관 악복조판관 의동삼사취판관  
(判官~泰山洪判官 注死馮判官 都司曹判官 惡福趙判官 儀同三司崔判官)
- ② 귀왕~천조귀왕 염수귀왕 낭아귀왕 대나리차귀왕  
(鬼王~千照鬼王 焰獸鬼王 狼牙鬼王 大那利叉鬼王)
- ③ 이부동자~상동(二府童子~上同)
- ④ 제위사자~상동(諸位使者~上同)
- 제육변성대왕의 권속(第六變成大王의 眷屬)
- ① 판관~공조정판관 법조호리판관 태산굴리판관 태음주실판관  
(判官~功曹鄭判官 法曹胡利判官 泰山屈利判官 太陰注失判官)
- ② 귀왕~주복귀왕 주모귀왕 주식귀왕 아나탁귀왕  
(鬼王~主福鬼王 主耗鬼王 主食鬼王 阿那砵鬼王)
- ③ 동자 사자~상동(童子 使子~上同)
- 제칠태산대왕의 권속(第七泰山大王의 眷屬)
- ① 판관~태산왕도굴판관, 태산황판관 태산설판관 장인판관 장□판관 주재판관

- (判官~泰山王道屈判官, 泰山黃判官 泰山薛判官 掌印判官 掌□判官 主財判官)
- ② 귀왕~대아나탁귀왕 주축귀왕 주금귀왕(鬼王~大阿那陀鬼王 主畜鬼王 主禽鬼王)
- ③ 동자 사자~상동(童子 使者~上同)
- 제팔평등대왕의 권속(第八平等大王의 眷屬)
- ① 판관~공조사보판관 태산릉판관 태산륙판관  
(判官~功曹司甫判官 泰山陵判官 泰山陸判官)
- ② 귀왕~주산귀왕 주수귀왕 주매귀왕(鬼王~主産鬼王 主獸鬼王 主魅鬼王)
- ③ 동자 사자~상동(童子 使者~上同)
- 제구도시대왕의 권속(第九都市大王의 眷屬)
- ① 판관~육조황보판관 부조진판관 태산호판관 태산동판관 태산능판관 주명판관  
(判官~六曹皇甫判官 府曹陳判官 泰山胡判官 泰山董判官 泰山能判官 主命判官)
- ② 귀왕~오목귀왕 주질귀왕 주음귀왕(鬼王~五目鬼王 主疾鬼王 主陰鬼王)
- ③ 동자 사자~상동(童子 使者~上同)
- 제십오도전륜대왕(第十五道轉輪大王)
- ① 판관~태산육조판관 태산정판관 태산조판관 태산오판관 태산이판관 시통경판관  
(判官~泰山六曹判官 泰山鄭判官 泰山趙判官 泰山鄒判官 泰山李判官 時通卿判官)
- ② 삼육장군~중원갈장군(三六將軍~中元葛將軍)
- ③ 귀왕~산양귀왕(鬼王~産殃鬼王)
- ④ 동자~주선동자 주악동자(童子~注善童子 注惡童子) ※태산부군(泰山府君)
- ⑤ 사자~상동(使者~上同)

이상(以上)을 십왕정화(十王幀畫)의 도설내용(圖說內容)에서 보면<sup>34)</sup> 십왕각정(十王各幀)을 의궤(儀軌)에 따라 도설화(圖說化)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게 된다. 즉(卽), 각정(各幀)의 상단(上段)은 사후(死後) 명계(冥界)의 심판광경(審判光景)을 묘사(描寫)하고 있는데 중앙(中央)에 각(各) 해당 명왕(冥王) 그 주위에 관복형(官服型) 착의(着衣)의 판관(判官)과 사자(使者)(사자(使者)는 영장(令狀)으로 생각되는 지물(持物)을 갖임) 그리고 동자상(童子像)과 장군상(將軍像)이 보이며 명왕향좌전(冥王向左前)에 업경대(業鏡臺)<sup>35)</sup>가 놓여지고 있다. 하단(下段)에는 심판결과(審判結果)에 따른 지옥상(地獄相)을 묘사(描寫)하고 있는데 판관(判官)의 선고광경(宣告光景)과 선고내용(宣告內容)인 지옥상(地獄相)이 묘사(描寫)된다. 지옥상(地獄相)은 옥왕(獄王)과 귀왕(鬼王)에 의(依)해 지배(支配)되는 지옥중생(地獄衆生)의 고통상(苦痛相)을 묘사(描寫)하고 있다. 그리고 삼십각정(三十各幀)의 좌우(左右)에는 다시 명부사자정(冥府使者幀)과 장군정(將軍幀)이 봉안(奉安)되어지는데 신근사(神勤寺)의 경우에서 보면 향좌(向左)에 장군정(將軍幀)을 좌(左)에 사자정(使者幀)을 우(右)에 향우(向右)는 장군정(將軍幀)이 우사자정(右使者幀)이 좌(左)에 놓여지고 사자정(使者幀)은 각각(各各) 상단(上段)에 사사자(四使者) 하단(下壇)에 사자용마(使者用馬)와 그 마부이인(馬夫二人)을 도설화(圖說化)하고 있는데 향좌(向左)의 마(馬)는 백마(白馬)이고 향우(向右)는 적마(赤馬)이다. 그리고 사자(使者)와 사자마(使者馬) 사이에 향좌정(向左幀)은 마면상(馬面相) 향우(向右)는 우두상(牛頭相)을 그려 넣고 있다. 이를 전등사(傳燈寺)의 것과 비교(比較)하면 사자상(使者像)과 장군상(將軍像)이 같은 위치(位置)에 놓이는 것은 같으나 다만 사자상(使者像)을 일사자(一使者)로 하고 마부(馬夫)도 없으며 우두(牛頭) 마면상(馬面相)도 없다.

이상(以上)에서 보던 십왕정(十王幀)은 대체(大體)로 의궤(儀軌) 내용(內容)을 따르고 있으나 그 원칙(原則)이 그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그리고 도설내용(圖說內容)의 성격(性格)을 보면 불교(佛敎)에서 말하는 염리에토(厭離穢土)와 혼구정토(欣求淨土)에의 권선징악적(勸善懲惡的) 불교수용(佛敎受容)의 방법(方法)으로 볼 수 있게 된다. 결국(結局) 십왕신앙(十王信仰)이란 사람이 죽으면 7일마다 일곱번과 백일(白日)과 소상(小祥) 하상(下祥)때에 각각(各各) 차례로 각십왕(各十王)의 심판(審判)을 열 번 받게 되므로 그 심판(審判)에 보다 많은 선근공덕(善根功德)을 쌓아 지옥(地獄)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인데 여기 이와 같은 중생(衆生)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구제(救濟)하겠다는 지장보살(地藏菩薩)의 서원(誓願)에 따른 지장신앙(地藏信仰)의 전개(展開)가 있게 된다. 지장신앙(地藏信仰)은 명부신앙(冥府信仰)과 관련을 갖지 않을 수 없음은 전술(前述)한 사실(事實)에서 알 수 있으나 십왕정화(十王幀畫)에 반드시 지장보살(地藏菩薩)이 그려지는 것은 이같은데 연유(緣由)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같은 지장신앙(地藏信仰)은 다시 그 신앙(信仰)이 강조(強調)되어 지장정화(地藏幀畫)를 형성(形成)하게 된다. 그러면 아래에서 지장정화(地藏幀畫)를 살펴 보기로 한다.

#### (7) 지장정화(地藏幀畫)

지장정화(地藏幀畫)는 십왕정화(十王幀畫)와 더불어 명부전(冥府展)에 봉안(奉安)된다. 즉(卽) 명부전(冥府展)은 지장보살(地藏菩薩)을 주불(主佛)로 그 좌우보처(左右補處)로 도명존자(道明尊者)와 무독귀왕(無毒鬼王)을 봉안(奉安)하고 그 좌우(左右)에 명부각십왕상(冥府各十王像)을 봉안(奉安)하는데 여기 지장보살상(地藏菩薩像)의 후불정화(後佛幀畫)가 지장정화(地藏幀畫)이며 각십왕(各十王)의 후면정화(後面幀畫)가 십왕정화(十王幀畫)이다. 지장정화(地藏幀畫), 도설내용(圖說內容)을 보면 기본형(基本型)이라 할 수 있는<sup>36)</sup> 지장보살상(地藏菩薩像)과 좌우보처(左右補處)인 도명존자(道明尊者)와 무독귀왕(無毒鬼王)을 중심(中心)으로 명부십왕(冥府十王)과 사자(使者) 장군(將軍) 졸리상(卒吏像) 사방(四方)에 호법신(護法神)인 사천왕상(四天王像)을 안배하는 것이 통례(通例)이다.<sup>37)</sup> 전등사(傳燈寺)의 경우에는 그 이외(以外)에 육광보살(六光菩薩)로 생각되는 사보살상(四菩薩像)이 있음을 보아 육광보살(六光菩薩)이 지장정화도설내용(地藏幀畫圖說內容)의 하나가 되어짐을 살필 수 있는 것이다.<sup>38)</sup>

이상(以上) 지장정화(地藏幀畫)의 도설내용(圖說內容)에서 보드라도 지장신앙(地藏信仰) 명부(冥府) 십왕신앙(十王信仰)과의 상관관계에서 이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다만 십왕신앙(十王信仰)이 중심(中心)이 되었을 때에는 십왕정화(十王幀畫)가 되고 지장신앙(地藏信仰)이 중심(中心)이 되었을 때에는 지장정화(地藏幀畫)가 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런데 또한 여기서 주목(注目)해야 될 것은 이같은 지장신앙(地藏信仰)과 결부되어 또다른 신앙(信仰)의 형태(形態)와 그에 따른 정화(幀畫)가 형성(形成)된다는 것이다. 즉(卽) 지장신앙(地藏信仰)은 지옥(地獄)의 고통(苦痛)에서 구제(救濟)되려는 신앙(信仰)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구제(救濟) 이후(以後)의 어떤 구체적(具體的)인 세계(世界)의 전개(展開)가 없다. 그리하여 지옥(地獄)이 아닌 이상적(理想的)인 정토(淨土)를 동경(憧憬)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사후(死後) 극락(極樂)에 대(對)한 신앙(信仰)과 그에 따른 극락왕생도(極樂往生圖) 같은 정화(幀畫)의 전개(展開)가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다음 하단정화(下壇幀畫)에서 살펴 보기로 한다.

### (三) 下壇信仰(하단신앙)과 그 幀畫(정화)

상단(上壇)이 불보살단(佛菩薩壇) 중단(中壇)이 신중단(神衆壇)이라면 하단(下壇)은 영가단(靈駕壇)이다. 영단(靈壇)인 하단신앙(下壇信仰)은 조상숭배신앙(祖上崇拜信仰)에 연유(緣由)되는 것이라 하겠으나<sup>39)</sup> 그 조상숭배(祖上崇拜)의 방법(方法)을 조상(祖上)의 영가(靈駕)를 극락왕생(極樂往生)케 한다는데 두게 됨으로서 극락왕생신앙(極樂往生信仰)인 정토신앙(淨土信仰)과 결부되어진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밝혀 둘 것은 정토신앙(淨土信仰)과 그에 의(依)한 정화(幀畫)는 당연히 상단정화(上壇幀畫)인 극락전(極樂殿) 후불정화(後佛幀畫)에서 살려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問題)가 있게 되는데 이는 상단정화(上壇幀畫) 극락전(極樂殿) 후불정화(後佛幀畫)에서도 이미 언급(言及)한 바이지만 극락왕생(極樂往生)을 도설화(圖說化)한 정화(幀畫)는 상단(上壇)에서 보다 하단(下壇)에서 더 많이 찾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를 하단정화(下壇幀畫)에서 밝혀 보려한다는 점(點)이다.

하단(下壇)은 대체(大體)로 불전(佛殿)의 좌측(左側)이나 우측(右側)의 벽면(壁面)에 설치(設置)하고 영가(靈駕)의 위패(位牌)나 사진(寫眞)을 봉안(奉安)한다. 그리고 그 후면(後面)에 정화(幀畫)를 현봉(懸封)하는데 이를 보통(普通) 감로정화(甘露幀畫)라 한다. 이는 우란분경변상도(盂蘭盆經變相圖)라고도 할 수 있는데<sup>40)</sup> 그 도설내용(圖說內容)을 보면 상단중앙(上段中央)에 칠여래상(七如來像) 그 하단(下段)에 칠여래(七如來)에 공양(供養)하는 성반(盛飯) 그 하단(下段)에 의식승(儀式僧)의 제의식광경(祭儀式光景), 그 하(下)에 아귀(餓鬼)(이상(二像)) 그 하(下) 좌우(左右)에 속세(俗世)의 제생활상(諸生活相)을 묘사(描寫)하고 있다. 한편 상단(上段) 칠여래(七如來)의 향우(向右)에는 극락래영도(極樂來迎圖) 향좌(向左)에는 극락접인도(極樂接引圖)를 표현(表現)하고 있는데 용주사정화(龍珠寺幀畫)의 경우에는 향좌(向左)에 극락(極樂)의 보살중(菩薩衆)과 천녀상(天女像)이 른(輦)으로 내영(來迎)하는 모습과 관음(觀音) 지장보살상(地藏菩薩像)이 보이고 향우(向右)에는 극락접입륜(極樂接入輦)과 그 우(右)에 접인보살(接引菩薩)인 인로왕보살상(引路王菩薩像)이 보인다. 이와는 달리 신록사(神勒寺)의 경우에는 향우(向右)의 극락내영도(極樂來迎圖)에서는 아미여래(阿彌如來)가 좌우(左右)의 협시(脇時) 관음보살(觀音菩薩)과 대세지보살(大勢至菩薩)과 함께 구름을 타고 왕생중생(往生衆生)을 맞이하는 모습이 보이고 향좌(向左)에는 접인보살(接引菩薩)인 인로왕보살상(引路王菩薩像)과 지장보살상(地藏菩薩像)이 역시 구름을 타고 접인(接引)하는 모습이 보인다. 이 두 비교(比較)에서 보면 신록사(神勒寺)의 것이 용주사(龍珠寺)보다 더 의궤내용(儀軌內容)과 교의내용(教義內容)을 잘 따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게 된다.<sup>41)</sup> 접인도(接引圖) 밑에는 신록사(神勒寺)의 경우에는 승속(僧俗)의 독경(讀經)하는 모습 그 밑에 지옥상(地獄相)이 보이나 용주사(龍珠寺)의 경우에는 독경(讀經) 모습은 보이지 않고 지옥문(地獄門)과 지옥(地獄)에 들어서려는 지옥중상(地獄衆相)과 그 위에 지장보살상(地藏菩薩像) 지옥중생상(地獄衆生相) 밑에 지옥상(地獄相)이 보인다. 내영도(來迎圖) 밑에는 용주사(龍珠寺)의 경우에는 속세생활상(俗世生活相)을 계층별(階層別)로 묘사(描寫)하고 있으나 신록사(神勒寺)의 경우에는 천상세계(天上世界)를 제일 위에 그리고 그 밑에 기타(其他) 생활상(生活相)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육도중생(六道衆生)을 표현(表現)한 것이라 보아진다.<sup>42)</sup>

다음에는 이를 의궤내용(儀軌內容)에서 살펴본다면 먼저 정화내용(幀畫內容)의 칠여



래(七如來)는 다음과 같은 것임을 알 수 있다. 하단의식(下壇儀式)은 시식의례(施食儀禮) 대표적(代表的)인 것인데 그에 의(依)하면

稱揚聖號(七如來)

칭양성호(칠여래)

南無多寶如來 願諸孤魂 破除煙貪 法財具定  
남무다보여래 원제고혼 파제견탐 법재구정

南無寶勝如來 願諸孤魂 各捨惡道 隨意超界  
남무보승여래 원제고혼 각사악도 수의초계

南無妙色身如來 願諸孤魂 離醜陋形 相好圓滿  
남무묘색신여래 원제고혼 이추루형 상호원만

南無廣博身如來 願諸孤魂 捨六凡身 悟虛空身  
남무광박신여래 원제고혼 사육범신 오히공신

南無離怖畏如來 願諸孤魂 離諸怖畏 得涅槃樂  
남무리포외여래 원제고혼 이제포외 득열반락

南無甘露王如來 願諸孤魂 咽喉開通 獲甘露味  
남무감로왕여래 원제고혼 인후개통 획감로미

南無阿彌陀佛願 諸孤魂 隨念初生 極樂世界  
남무아미타불원 제고혼 수념초생 극락세계

그리고 시식편(施食篇)의 대영의(對靈儀)에 의(依)하면 그 중심불보살(中心佛菩薩)을 거불(擧佛)에서 살필 수 있는데 그에 의(依)하면

南無極樂導師阿彌陀佛 南無左右補處兩大  
남무극락도사아미타불 남무좌우보처양대

보살(菩薩)(관음(觀音) 세지(勢至)) 남무접인망령인로왕보살(南無接引亡靈引路王菩薩) 여기서 아미타불(阿彌陀佛)은 양대보살(兩大菩薩)을 보처(補處)로 하여 영가(靈駕)를 극락(極樂)으로 내영(來迎)하고 인로왕보살(引路王菩薩)은 극락(極樂)에 접인(接引)(안내(案内))하는 보살(菩薩)로 신앙(信仰)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같은 신앙(信仰)의 형태(形態)가 도설화(圖說化)되어진 것이 극락내영도(極樂來迎圖)이며 접인도(接引圖)인 것이다. 한편 하방(下方)의 세속(世俗)의 제생활상(諸生活相)은 육도중생(六道衆生)의 생활상(生活相)<sup>43)</sup>을 묘사(描寫)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이같은 세속생활(世俗生活)의 제상(諸相)을 그린 감로정화(甘露眞畫)에는 한국적(韓國的)인 풍속(風俗)을 토

대(土臺)로 중생상(衆生相)을 나타내고 있어 그 시대(時代)의 정신(精神)과 풍속(風俗)을 찾아 볼 수 있어 더욱 주목(注目)을 끌게 한다.

그리고 다음에는 또 이와같은 감로정화(甘露幀畫)와 더불어 간과(看過)할 수 없는 것은 극락구품도(極樂九品圖)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생전(生前)에 지은 중생(衆生)의 업장(業障)이 명부십왕(冥府十王)에 의(依)해 심판(審判)되고 그 결과(結果)가 지옥(地獄)으로 떨어진다는 지옥(地獄)에 대한 고통(苦痛)의 예견(豫見)은 지옥(地獄)에서 구제(救濟)될 것을 바라면서 그 방법(方法)을 찾고 또한 지옥(地獄)에서 벗어난 이상경(理想境)을 찾는 신앙(信仰)으로 결부되어진다. 즉(卽) 전자(前者)가 십왕신앙(十王信仰) 지장신앙(地藏信仰) 인로왕보살신앙(引路王菩薩信仰)이며 그 표상(表象)이 그에 따른 각불정(各佛幀)이라던 극락구품도(極樂九品圖)는 현상경(現想境) 즉(卽) 혼구정토(欣求淨土)의 신앙(信仰)을 바로 나타낸 극락도(極樂圖)인 것이다. 하단정화(下壇幀畫)인 감로왕정화(甘露王幀畫)에서 극락내영도(極樂來迎圖)와 접인도(接引圖)가 있어 대체적(大體的)인 극락왕생(極樂往生)의 신앙(信仰)이 표현(表現)되어 지고 있기는 하나 여기서 만족(滿足)하지 않고 보다 구체적(具體的)인 극락(極樂)의 도설화(圖說化)가 요구(要求)되는 점이다. 그런데 이와같은 극락도(極樂圖)는 상단(上壇) 중단(中壇) 하단(下壇)으로 정화유형(幀畫類型)을 구분(區分)할 때 어디 속(屬)하느냐 하면 확실(確實)한 회답(回答)을 구(求)하기 어렵게 된다. 왜냐하면 극락구품도(極樂九品圖)가 상단정화(上壇幀畫)로 현괘(懸掛)되는 예(例)도 없거니와 중단(中壇)에는 물론(勿論)없다. 하단정화(下壇幀畫)는 그 대표적(代表的)인 것이 감로정화(甘露幀畫)이다. 그래서 그 현괘위치(懸掛位置)도 무슨 전각(殿閣) 무슨 단(壇)하였을 때는 그 주(主)된 위치(位置)와 전각(殿閣)을 찾아 볼 수 없다. 대웅전내(大雄殿內)의 적당한 위치(位置)에 현괘(懸掛)함이 통례(通例)이다.<sup>44)</sup> 다만 전술(前述)한 하단정화(下壇幀畫)와의 관련에서 볼 때 하단(下壇) 가까이 현괘(懸掛)함이 신앙상(信仰上) 타당(妥當)할 것이 아닌가 할 수 있을 뿐이다.

극락구품도(極樂九品圖)란 극락(極樂)을 다음과 같이 구품(九品)으로 나누어 도설화(圖說化)한 것이다. 즉(卽)上品상생도(上品上生圖)上品중생도(上品中生圖)上品하생도(上品下生圖)중품상생도(中品上生圖)중품중생도(中上品中生圖)중품하생도(中品下生圖)하품상생도(下品上生圖)하품중생도(下品中生圖)하품하생도(下品下生圖) 이는 무량수경(無量壽經)에 의거(依據)한 왕생인(往生人)의 근기(根機)의 차등(差等)에 의(依)한 각각(各各)의 왕생처(往生處)를 도설화(圖說化)한 것이라 하겠는데<sup>45)</sup> 대개의 경우 일본(一本)의 정화(幀畫)에 삼(三)·삼(三)의 구품도(九品圖)를 그려 넣고 있다.

## 기타(其他)의 정화(幀畫)

이상(以上)에서 열거한 정화이외(幀畫以外)에도 조사(祖師)의 영정과거불정(影幀過去佛幀)<sup>46)</sup>을 비롯하여 현왕정(現王幀)<sup>47)</sup>등(等)을 살필수 있고 한국사원(韓國寺院)에서 행(行)해지는 모든 신앙(信仰)의 대상(對象)은 도설화(圖說化)되어지는 가능성(可能性)을 살필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상기(上記) 정화(幀畫) 이외(以外)의 여타(餘他)의 신타(信他)의 대상(對象)은 미처 도설화(圖說化)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대상(對象)의 위목(位目)만을 붓으로 써서 정(幀)을 만들고 그 정(幀)을 현괘(懸掛)하고 신앙(信仰)의 대상(對象)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 결론(結論)

한국사원전래(韓國寺院傳來)의 불화(佛畵)(정화(幀畵))는 신앙(信仰)의 대상(對象)과 그 신앙내용(信仰內容)을 도설화(圖說化)한 것이다. 그러므로 불화(佛畵)의 내용(內容)은 곧 신앙(信仰)의 내용(內容)과 형태(形態)를 의미(意味)한다. 그런데 본론(本論)에서 살핀 바와 같이 한국불교(韓國佛敎)의 신앙(信仰)의 형태(形態)는 다양(多樣)한 것이어서 정화내용(幀畵內容)도 다양(多樣)한 형태(形態)를 지니고 나타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다양(多樣)한 형태(形態)에서 하나의 질서(秩序)를 찾을 수 있으니 이가 곧 상단(上壇) 중단(中壇) 하단(下壇)의 분단법(分壇法)에 의(依)한 신앙(信仰)과 각단(各壇)의 상호관련성(相互關聯性)에서의 신앙형태(信仰形態)인 것이다. 그리고 이와같은 신앙형태(信仰形態)가 바로 상(上) 중(衆) 하단(下壇)의 정화(幀畵)를 형성(形成)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卽) 상단정화(上壇幀畵)에서는 불교(佛敎)의 근본진리(根本眞理)와 그 근본진리(根本眞理)의 설법상(說法相)을 그리고 그와 같은 근본진리(根本眞理)에 귀의(歸依)한 공덕상(功德相)을 나타내고 중단정화(中壇幀畵)에서는 상단(上壇)의 불법(佛法)과 불신자(佛信者)를 수호(守護)하는 호법제신상(護法諸神相)을 또한 상중단(上中壇)의 신앙(信仰)에 의(依)해서 쌓은 공덕(功德)을 조상(祖上)에게 회향(回向)하는 신앙(信仰)의 표상이 하단(下壇)의 정화(幀畵)라 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와같은 정화(幀畵)의 내용(內容)에 나타난 신앙형태(信仰形態)는 한편 보면 상단정화(上壇幀畵) 하나로 귀일(歸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卽), 상단정화(上壇幀畵)에는 전술(前述)한대로 불교(佛敎)의 근본상(根本相)과 그의 설법상(說法相) 그리고 그를 수호(守護)하는 신중상(神衆像)이 도설화(圖說化)되어진다. 그리고 그에 대(對)한 신앙(信仰)은 자연(自然) 하나의 공덕상(功德相)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에 만족(滿足)하지 않고 다양(多樣)한 정화(幀畵)가 도설화(圖說化)되어지는 것은 신앙(信仰)의 구체화(具體化)와 토속신앙(土俗信仰)과의 습합현상(習合現象)이라 할 수 있겠다. 전자(前者)의 경우는 상단정화(上壇幀畵)에서의 관음정화(觀音幀畵) 약사(藥師) 등(等)도 들 수 있겠고 중단정화(中壇幀畵)에서는 십삼정화(十三幀畵)에서의 지장(地藏)이 지장정화(地藏幀畵)로 전개(展開)되고 또한 감로정화(甘露幀畵)의 극락내영(極樂來迎)과 접인(接引) 지장등(地藏等)이 다시 극락도(極樂圖)와 극락접인도(極樂接引圖)로 전개(展開)되고 지장정화(地藏幀畵)로 전개(展開)되는 것 등(等)이겠고 후자(後者)의 경우는 상단정화(上壇幀畵)에서 신중(神衆)을 호법신(護法神)으로 포용(包容)하여 일차적(一次的)인 습합현상(習合現象)을 나타내고 다시 그 신상(神象)이 독립(獨立)하여 신중정화(神衆幀畵)로 전개(展開)되고 또한 신중정화(神衆幀畵)에서 각기(各記) 신중(神衆)이 독립(獨立)된 신앙형태(信仰形態)로 전개(展開)되어 칠성(七星) 산신(山神) 십왕(十王)· 조왕(竈王)· 현왕(現王) 등(等)의 도설화(圖說化)를 보게 됨이 그것이다. 그런데 다만 여기서 간과(看過)해서는 안 될 것은 전술(前述)한 양자(兩者)의 경우가 어떤 발전(發展)의 단계(段階)를 거쳐 분화(分化) 전개(展開)되어진 것이 아니라 상호관련성(相互關聯性)의 관계성(關係性)이란 점(點)을 잊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중단(中壇) 하단신앙(下壇信仰)의 경우 그것이 불교신앙(佛敎信仰)이기 위해서는 그것만으로 독립(獨立)된 신앙(信仰)이 성립(成立)될 수 없기 때문이다. 수(修)를 들면 칠성신앙(七星信仰)을 중심(中心)으로 신앙행위(信仰行爲)를 행(行)할 경우 반드시 먼저 상단의식(上壇儀式)을 행(行)하지 않으면 안되며 그 상단의식(上壇儀式)의 신앙(信仰)의 공덕(功德)이 중생(衆生)의 구체적(具體的)인 원망(願望)인 칠성(七星)으로 화현(化現)되

어 나타난 칠성단(七星壇)에 다시 신앙행위(信仰行爲)를 행(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같은 예(例)는 칠성신앙(七星信仰)에서 뿐 아니라 중단(中壇) 하단신앙(下壇信仰)의 모든 경우에 마찬가지다. 즉(卽), 상단의식(上壇儀式)의 유치청사(由致請詞)는 그 취지(趣旨)가 「유원자비(唯願慈悲) 연민유정(憐愍有情) 강림도장(降臨道場) 수차공양(受此供養)」에 있는데 중(中), 하단(下壇)에서는 「유원승(唯願承) 삼보력(三寶力) 강림도장(降臨道場) 수차공양(受此供養)」에 그 취지(趣旨)가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신앙형태(信仰形態)는 서민신앙(庶民信仰)의 일단(一端)이라 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 보면 일반서민대중(一般庶民大衆)은 이상적(理想的)인 불보살(佛菩薩)에의 귀의(歸依)의 형태(形態)가 직접적(直接的)이 아닌 간접적(間接的)인 형태(形態)를 빌리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게 된다. 즉(卽) 우리의 보다 구체적(具體的)인 관심사(關心事)인 제신(諸神)을 통(通)하여 보편적(普遍的)인 불교(佛敎)의 진리(眞理)에 도달(到達)하려고 하는 신앙형태(信仰形態)인 것이다. 그리하여 중단정화(中壇幀畵)와 중단(中壇)에서 분화전개(分化展開)되어진 모든 정화(幀畵)에서 살릴 수 있는 도설내용(圖說內容)은 소재회상(消災會相)의 성격(性格)을 지닌다. 그러면 이와같은 신앙(信仰)의 표상인 정화(幀畵)의 근본성격(根本性格)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를 결론(結論)부터 말하면 밀교적(密敎的)인 성격(性格)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정화(幀畵)의 도설(圖說)은 밀교(密敎)의 만다라(曼荼羅)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상단정화(上壇幀畵)는 밀교(密敎)에서 말하는 능통일(能統一)의 객체(客體)의 성격(性格)을 지니고 여지(餘地)의 정화(幀畵)는 앙통일(仰統一)의 객체(客體)로서의 성격(性格)을 지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sup>48)</sup> 그리하여 한국(韓國)의 불화(佛畵)는 각정화(各幀畵) 하나 하나가 만다라(曼荼羅)일수도 있으나 전정화(全幀畵)가 모두 하나의 만다라(曼荼羅)의 구조(構造)에서 파악(把握)되지 않을 수 없는 성격(性格)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같은 한국불화(韓國佛畵)의 구조적(構造的) 성격(性格)을 파악(把握)하지 않고서는 개개(個個)의 정화내용(幀畵內容)은 구명(究明)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結局) 한국(韓國)의 정화(幀畵)는 다양(多樣)하게 나타나면서도 하나로 통일(統一)되는 만다라(曼荼羅)를 형성(形成)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신록사(神勒寺) 지장정화(地藏幀畫)(I)



신록사(神勒寺) 지장정화(地藏幀畫)(II)



전등사(傳燈寺) 약사전약사정화(藥師殿藥師幀畫)



신록사(神勒寺) 명부십왕정화(冥府十王幀畫)  
第一泰廣大王 第三宋宰大王 第五閻羅大王



신록사(神勒寺) 명부십왕정화(冥府十王幀畫)  
第二初江大王 第四五官大王 第六變成大王



신록사(神勒寺) 명부십왕정화(冥府十王幀畫)  
第七泰山大王 第九都市大王

P86 사진

신록사(神勒寺) 지장정화(地藏幀畫)(I)

신록사(神勒寺) 지장정화(地藏幀畫)(II)

전등사(傳燈寺) 약사전약사정화(藥師殿藥師幀畫)

신록사(神勒寺) 명부십왕정화(冥府十王幀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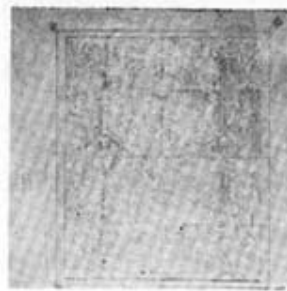
제일태광대왕(第一泰廣大王) 제삼송재대왕(第三宋宰大王) 제오염라대왕(第五閻羅大王)

신록사(神勒寺) 명부십왕정화(冥府十王幀畫)

제이초강대왕(第二初江大王) 제사오관대왕(第四五官大王) 제육변성대왕(第六變成大王)

신록사(神勒寺) 명부십왕정화(冥府十王幀畫)

제칠태산대왕(第七泰山大王) 제구도시대왕(第九都市大王)



後佛幀畫



神勒寺 冥府 右使者幀畫 左將軍幀畫



神勒寺 冥府 右將軍幀畫 左使者幀畫



神勒寺 極藥寶殿 後佛幀畫



龍珠寺 大雄寶殿 後佛幀畫



傳燈寺 地藏幀畫

P87 사진

후불정화(後佛幀畫)

신록사(神勒寺) 명부(冥府) 우편자정화(右便者幀畫) 좌장군정화(左將軍幀畫)

신록사(神勒寺) 명부(冥府) 우장군정화(右將軍幀畫) 좌편자정화(左便者幀畫)

신록사(神勒寺) 극약보전(極藥寶殿) 후불정화(後佛幀畫)

용주사(龍珠寺) 대웅보전(大雄寶殿) 후불정화(後佛幀畫)

전등사(傳燈寺) 지장정화(地藏幀畫)



傳燈寺 冥府使者 將軍幀畫



神勒寺 神衆幀畫



龍珠寺 甘露幀畫



奉寧寺 七星幀畫



神勒寺 七星幀畫



龍珠寺 三藏幀畫

P88 사진

전등사(傳燈寺) 명부사자(冥府使者) 장군정화(將軍幀畫)

신특사(神勒寺) 신중정화(神衆幀畫)

용주사(龍珠寺) 감로정화(甘露幀畫)

봉영사(奉寧寺) 칠성정화(七星幀畫)

신특사(神勒寺) 칠성정화(七星幀畫)

용주사(龍珠寺) 삼장정화(三藏幀畫)



龍珠寺 神衆幀畫



松廣寺 華嚴幀畫



通度寺 帝釋幀畫



海印寺 靈山會山圖 後佛幀畫



海印寺 神衆幀畫



海印寺 七星幀畫

P89 사진

용주사(龍珠寺) 신중정화(神衆幀畫)

송광사(宋廣寺) 화엄정화(華嚴幀畫)

통도사(通度寺) 재석정화(宰釋幀畫)

해인사(海印寺) 영산회산도(靈山會山圖) 후불정화(後佛幀畫)

해인사(海印寺) 신중정화(神衆幀畫)

해인사(海印寺) 칠성정화(七星幀畫)



<註>

- 1) 韓基斗 洪潤植共著 韓國佛教 韓國佛教의 特徵 圓光大學校出版局
- 2) 韓國寺院傳來의 幀畫內容은 全體構造에서 살피지 않을 때 그 正確한 內容과 性格을 究明할 수 없게 된다.
- 3) 現釋門儀範의 中壇은 神衆壇이며 그 幀畫도 神衆幀畫이나 朝鮮 肅宗朝 刊行의 梵音集은 中壇은 三藏壇이며 그 幀畫도 三藏壇畫(龍珠寺 神勒寺 海印寺 通慶寺 等에 傳함)이다. 따라서 信仰內容도 다르다.
- 4) 拙稿 “佛敎儀式의 三壇分壇法” 文化財九號 文化財管理局
- 5) 元魏 吉迦夜 曇曜譯 「付法藏因緣傳」 第一
- 6) 「新編八相錄」 佛書普及社 參照
- 7) 惠谷隆戒 「天台學概論」 敎判論 參照
- 8) 後佛幀畫의 代表的인 것은 華嚴幀畫와 法華經說法의 法會光景을 描寫한 靈山會上圖인 점이 그것이다.
- 9) 法華經 片品の 「如是我聞 一時佛在王舍城 耆闍崛山(靈鷲山)中 與比丘衆 萬二千人俱 皆是阿羅漢……名稱普聞 無量世界 能度無數 百千衆生 其名 日文殊師利菩薩 觀世音菩薩……如是等 菩薩摩訶薩 八萬人俱」
- 10) 神衆壇儀式의 神衆請條를 보면  
志心歸命禮 華嚴會上 欲色諸天衆  
志心歸命禮 華嚴會上 八部四王衆  
志心歸命禮 華嚴會上 護法善神衆  
이라 하여 神衆이 華嚴會上의 神衆임을 나타내고 있다. 釋門儀範 神衆請
- 11) 末綱怨一 華嚴經의 世界 參照
- 12) 無量壽經卷上의 八部衆 法華經卷四 提婆品の 天部八部 龍神八部 金光明經卷二 四二王品 長阿舍起世經 大毘娑論 仁王經等의 守護神
- 13) 오늘날 神衆壇 神衆의 位目を 보면 經典上의 神藥뿐 아니라 七星 等의 中國의인 神과 山神 等의 韓國神이 포 함되고 있음이 그것이다. 그 代表的인 것이 海印寺 梵魚寺의 百四位神 衆幀畫이다.
- 14) 海印寺所藏의 嘉唐年間의 靈山會上圖가 그 代表的인 것이라 할 수 있다. 現在는 後佛幀畫로 懸封하지 않고 副所에 所藏中임.
- 15) 上壇儀式의 가장 理想的인 形態가 靈山作法이라 믿고 있으며 이 靈山作法은 釋尊의 靈山說法相을 象徴化한 形態로 나타난다. 梵音集의 靈山作法 舉佛에서 靈山敎主釋迦牟尼佛 南無靈山會上佛菩薩等과 「說法後 魚山唱妙法 蓮華經 大眾擊鼓同月誦蓮華經」 함은 모두 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 16) 大體로 모든 佛佛幀畫는 이같은 形式을 지나나 名像의 配置 像數의 差異 等은 作者의 創意力에 따라 多少 差異點을 보이고 있음.
- 17) 前揭註 10) 參照
- 18) 神勒寺 極樂殿 後佛幀畫의 用例와 孤雲寺 極樂殿 後佛幀畫의 用例에서
- 19) 龍珠寺 大雄寶殿 後佛幀畫의 用例와 海印寺 後佛幀畫의 用例의 對比
- 20) 現用 佛敎儀式集인 釋門儀範 神衆壇 神衆請條
- 21) 釋門儀範 神衆作法 神衆位月篇 參照
- 22) 大體의인 神衆幀畫의 構圖內容을 보면 中央에 上壇으로서의 大藏跡金剛을 中壇으로서 上壇左右에 大梵天王 帝釋天王 아니면 童眞菩薩 大梵天王을 下段에 諸神將像으로 한다(傳燈寺 龍珠寺 神衆幀畫) 上壇인 大藏跡金剛像을 그리지 않을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大梵天 帝釋天等이 上壇이 된다. 이는 三十九位 神衆位目を 基本으로 한 것이다(神勒寺 神衆幀畫)
- 23) 神衆壇信仰의 內容을 神衆壇儀式의 由致에서 보면 「慧鑑分明 妙用自在 賞善罰惡之無私 追災降福之有直 凡諸所願 莫石響從一」이라 한데서 알 수 있다.
- 24) 華嚴經 寂滅道場會 世間淨眼品第一
- 25) 釋門儀範 七星壇儀式篇 參照
- 26) 李相國集卷三九 天變祈禱五星道場文에 依하면 道教의 醮祭가 佛敎的으로 包容되어 七星儀가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 27) 高麗大藏經 秘密部의 西些波羅門 唐金俱吒撰 七曜穰災訣, 唐一行撰 七曜星辰別行法과 北斗七星護摩法, 唐波羅門譯 佛說北斗七星延命經, 唐大興善寺翻經院阿闍利灌度述 北斗七星護摩秘要儀軌 唐金剛智譯 北斗七星念誦儀軌 등이 그것이다.
- 28) 高麗大藏經 秘密部의 北斗七星延命經에 依함.
- 29) 高麗史卷第一의 「是歲外帝釋院」과 同卷第八의 「說帝釋道場 于文德殿七日」 同券第十一의 「辛亥又設天釋道場 於文德殿 以穰天變」
- 30) 三國遺事 金現感虎條 參照
- 31) 金泰坤 「韓國巫神의 禱類」 國際大學論文集 第七輯
- 32) 印度에서는 死後의 神을 「yana」라 하는데 이를 漢譯하여 閻摩 或은 閻羅라 번역하고 있다. 度邊照宏 「死後의 世界」 拙稿 「引路王菩薩信仰」 宗教史研究第二輯 韓國宗教史學會
- 33) 神勒寺 十王幀畫와 神興寺(興天寺 서울) 十王幀畫
- 34) 前揭註 參照
- 35) 冥府 閻摩廳에 있다는 거울로 여기에 生前에 지은 善惡의 行業이 모두 비추어진다고 함. 十王幀畫의 十王前에 놓여 있는 圓型의 거울
- 36) 地藏菩薩이 地獄衆生을 救濟함에 있어 道明尊者와 無毒鬼王 ‘補虜’한다는 것이 地藏經에 나타난 地藏信仰의 基本型이다.
- 37) 神勒寺에는 地藏幀畫二本이 있는데 其中 一本은 冥府十王 모두와 判官四像 使者二像 將軍二像 牛頭 馬面像 二童子儀이 보이는데 四天王像은 없고 第二本에서는 十王과 判官儀으로 보이는 6像과 四天王像으로 되어 있다.
- 38) 傳燈寺地藏幀畫는 中央의 地藏菩薩左右補虜의 道明尊者·無毒鬼王을 中心으로 四方에 四天王 上段에 十王中

六王 地藏頭光身の 二童子像이 配置되고 中단에 地藏左右에 各各 二菩薩像을 配置하고 있는데 이는 地藏六光菩薩中 四菩薩로 생각된다. 佛界에서 世界를 十界로 나누워 佛 菩薩 聲聞 緣覺의 悟界인 四界와 地獄界 餓鬼界 畜生界 修羅界 人間界 天上界의 迷界인 六界로 나누는데 六界를 六道라 하는 것으로 六道는 모두 苦의 世界로 各各의 地獄이 있게 된다. 그런데 六光菩薩이란 이와 같은 六道에 각각 나타나는 地藏菩薩의 分身을 가르킨다 (地藏經卷上 分身集會品) 이와같은 六光菩薩이 地藏幀畫의 한 要素로 되어짐은 預修齊加持變供篇 供養六光菩薩象이 있는 것으로도 살필 수 있게 된다.

39) 佛敎에서의 靈爲薦度에 對한 信仰은 孟蘭盆經에서 그 根據를 살필 수 있는데 「七月十五日 佛歡喜日 僧自恣日以百味飯食 安孟蘭盆中 施十方自恣僧 願使現在父母壽命 百年無柄 無一切苦惱之患乃至七世父母離餓鬼苦得人天中福樂無極 是佛弟子修孝順者 應念念中 常憶父母乃至七世父母 年年七月十五日 當以孝慈憶所生父母 爲作孟蘭盆施佛及僧 以報父母長養慈爲之恩……」 大正藏經 卷十六의 信仰과 우리나라 在來의 祖上崇拜와의 習合 現象으로 보인다.

40) 無量壽經이나 極樂薦度の 儀軌內容에서 보면 極樂來迎은 阿彌陀 觀音勢至이고 極樂接引의 儀軌에서 보면 地藏과 引路王菩薩이다. 拙稿는 引路王菩薩信仰 韓國宗敎史學第二輯 韓國宗敎史學會와 釋門儀範 參照

41) 前掲註 39) 參照

42) 前掲註 38) 參照

43) 前掲註

44) 서울 奉元寺와 興天寺의 大雄殿의 極樂九品圖의 用例에서

45) 淨土三部經 大無量壽經 卷下 往生人の 三類 岩波書店 岩波文庫

46) 松廣寺 過去佛禱

47) 現王은 사람이 죽어 三日만에 審判을 받는다는 冥界王이다. 그 圖說內容을 儀軌에서 살피면

去心歸明禮 冥間會主普現王如來佛

去心歸命禮 左右補虜大輪聖王 轉輪聖王

去心歸命禮 判官錄事諸位使者並眷屬

傳燈寺와 奉寧者의 現王幀畫에서 보면 中央에 現王 그 左右에 判官 錄事 使者 龍子像이 보인다.

48) 密敎儀式의 宗敎的 意識의 發現形式은 昆虜遮那舍來 或은 大日如來 能統一의 客體로 하고 諸神 菩薩 諸天 神을 所統一의 容體로 하는 것으로 能統一의 客體와 所統一의 客體와의 關係는 所統一의 客體는 能通一의 客體를 中心으로 생각할 수 있다…… 「拙著 韓國佛敎儀禮の研究」 「密敎儀禮」 隆文館 東京